

- 지역 불균형 해소와 대한민국 미래 달린 일
- 지역인재 공정한 취업 기회 보장을 위한 필수
-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



‘대한민국 수소경제’ 충남이 앞장선다

“수소경제, 도정 최우선 과제”
충남형 로드맵 따라 추진 중
수소시범도시 조성, 민·관 한뜻
기후변화 해결방안 함께 모색

충남도가 수소경제 육성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는 지난 21일 천안상록호텔에서 ‘수소경제 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19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을 개최, 국내·외 수소에너지 정책 및 최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도 차원의 정책 과제 발굴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수소는 기존 화석연료가 갖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과 환경오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 에너지로, 수소에너지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으로 필수적 고려 대상이다.

충남도는 이날 포럼에서 지난 3월 수립한 ‘충남형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 ▲수소차 부품시험평가센터를 통한 18개 부품기술 개발 과제 추진 ▲부생수소 이용 연료전지발전소 건설 ▲플라즈마 활용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 ▲수소시범도시 조성 등을 소개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수소경제의 미래를 준비함으로써 충남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수소경제 사회의 미래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

개회식에 도와 당진시,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열린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시범도시에는 교통은 물론, 공동주택과 빌딩 등의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도를 비롯한 5개 기관·기업이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 국토교통부의 수소시범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 참여한다는 내용이다.

특별연설은 존 윌리엄 셰필드 미국 퍼듀대학 교수가 ‘세계 수소경제 동향 및 수소산업 육성 전망’을, 오준원 블루에너지 한국 대표이사가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을 주제로 각각 가졌다.본 세션은 ‘수소산업의 확장’과 ‘지역경제와 수소산업’ 등 두 개로 나눠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수소산업 육성 방향’을, 알버트 반 루트 네덜란드 DNV GL사 컨설턴트가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의 안전성 및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또 시아올리우 국제 수소연료전지협회 매니저가 ‘연료전지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이택홍 호서대 교수·송락현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소 연관 산업 육성 방향’과 ‘차세대 연료전지 동향’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은 추이즈밍 중국 화남이공대 교수가 ‘광동성 수소에너지산업 육성 방향’을, 토마스 보치에초브스키 폴란드 피와시 에너지 클러스터 리더가 ‘대중교통용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입 계획’을 전했다. 이어 유중수 하이넷 대표가 ‘수소스테이션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권광원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 차장은 ‘고순도 수소 생산 다양화를 통한 수소경제 선도’ 방안을 제시했다.

포럼 이틀째인 22일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역사문화 탐방을 펼쳤다. ●에너지과 041-635-3464



첫눈 맞는 동심(童心) 소설(小雪)을 며칠 앞둔 지난 19일, 충남에도 첫눈 소식이 날아들었다. 충남도청이 위치한 홍성군에서도 첫눈이 관측되자, 인근 어린이집에서 첫눈 맞이 나들이를 나온 동심(童心)이 들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복지수도 뒷받침할 충남복지재단 출범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등 추진

‘복지수도 충남’을 뒷받침할 충남복지재단이 지난 20일 첫 발을 떼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복지재단은 이날 내포신도시 전문건설회관에서 도 및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도 관계자는 격려사를 통해 “3대 위기 극복과 충남형 복지정책을 이끄는 전문 연구조직인 충남복지재단이 현장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통해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의 마중물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라며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충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충남복지재단 1호 정책 연구과제로 추진해 현장이 힘을 토대로 도민 복지 구현에 매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포신도시(예산군 삽교읍 목리) 전문건설공제조합 5층에 자리 잡은 충남복지재단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급격한 복지 환경에 대응하고, 전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가 설립

한 비영리 기관이다.

초대 이사장은 변평섭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 대표이사는 고일환 전 충남도 저출산보전복지실장이 각각 맡았다.

충남복지재단은 앞으로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및 현안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 운영 ▲위기 등 고난이도 사례 컨설팅 및 솔루션 운영 ▲공유복지 플랫폼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회복지과 041-635-4241

‘행복키움수당’ 단계적 확대 지급

출생~만36개월, 매월 10만원
내년까지 1·2차 단계적 확대
1차, 2만명 23억원 지급 완료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충남도가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만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는 지난 21일 행복키움수당 지원기간을 올해 11월 만24개월 미만으로 1차 확대하고, 내년 11월에는 만36개월 미만으로 2차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명칭을 바꾼 행복키움수당은 지원기간을 확대해 보호자와 아이가 보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만36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기간의 확대에 행복키움

수당 지급 대상 도민은 2만 9000여 명 늘어난 4만 45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존 충남아기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아기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충남아기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달 중 직접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아기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11월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이달 20일 행복키움수당으로 도민 2만 3211명에게 총 23억 2110만 원을 1차 확대 지급했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7

‘글로벌 무역도시 충남’ 올해 외자유치 1조 돌파

도정 톺아보기

발품 팔며 전 세계 누비며 성과
불확실 시대 외자유치로 돌파
‘복지수도충남’ 무역 1위 저력

‘산업한류 충남’의 외자유치 발걸음이 다부지다. 어느덧 올해 목표한 외자유치 목표를 116% 초과달성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충남은 이달만 들어서도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글로벌 우량우투기업 3개사에서 1억8500만 달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네덜란드 그린바이오식품회사 프로틱스와 1500만달러, 벨기에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인 유미코아로부터 1억달러, 그린바이오식품 세계 1위 기업인 베오스로부터 7000만 달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외투기업 유치효과는 막대하다. 이들 3개 기업의 생산유발효과만 보면 향후 5년간 1조1827억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수입대체효과는 1100억 원에 달하고, 수출액도 800억 규모에 이른다.

산업한류에 앞장서고 있는 충남에는 장벽도 없다. ‘정글만리’ 중국 선전에서 중국 CGNPC사와 1억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 중국의 캠핑용 카라반 자동차 생산업체인 컴팩스 RV사와 2300만 달러를 유지했다. 일본에서도 500만 달러를 체결하는 등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BUY충남’에 나서고 있다.

올해 충남도가 발품을 팔며 유럽과 미국, 동남아, 중국과 일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유치한 외자유치 총액은 1조7599억 원의 외자유치 대박 수준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다. 국내 기업유치로도 한계가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여

전한 상황이다. 결국 외자유치를 통한 출구전략 뿐이다. 충남은 투자처만 있다면 국내외 가리지 않고 어디든 간다는 각오다. 발품을 팔아 기업을 감동시켜 외국기업들이 충남에 투자하도록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은 ‘복지수도 충남’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환경이란 결국 보다 많은 기업을 충남에 투자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일자리는 복지가 된다.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외화 유입, 선진 경영기법과 기업문화 도입 긍정적인 요소도 많다. 이제 충남은 전원마을 풍경만 상상하지 말지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세계 1위의 최첨단 도시다. 대한민국 무역수지 흑자 1위의 대한민국 중추 무역도시이자, ‘글로벌 기업도시’ 자체이다. 한류원조 백제의 위풍당당이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농촌형 스마트타운’ 조성해 활기 살린다

청양형 첨단 복합산단 추진

“양질 일자리로 선순환 이끌 것”

충남도가 청양군에 농촌형 스마트타운과 일반산업단지 등 ‘청양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지난 20일 민선 7기 2년 차 청양군 시·군방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청양군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주거·관광 복합시설에 첨단 스마트기능을 도입한 산단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농촌형 스마트타운은 청양군 남양면 일대 약 100만㎡(30만 평) 부지에 농특산물 임가공산업, 농촌형 연료전지산업, 스마트관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운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우건설과 LG CNC, 한국서부발전 등이다. 일반산업단지는 92만 7844㎡(28만평) 부지(비봉면 일원)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도 관계자는 “청양이 가진 특성을 바탕으로 청양만의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라며, “농특산물의 소비

확대와 소득 증대를 꾀하고, 귀농·귀촌을 촉진시키겠다”라고 설명했다.

도는 산업단지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선순환의 경제 동력이 확보된다면, 청양이 가진 청정 이미지와 관광자원 활용도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군민들은 이날 ‘청양군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의 대주제 속에 ▲신규 일반산단 조성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활성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한 푸드 플랜 ▲가족문화센터 추진 등의 안건을 도에 제시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2

도 농기원 김동찬 박사 농식품부 장관 표창 ‘영예’

‘경관조성국화’ 개발 성과

충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김동찬 박사가 지난 11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2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은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실용성 있는 기술 개발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정부 포상 제도이다.

이번 수상은 ‘경관조성국화 품종 개발과 신(新)시장 개척 연구’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김 박사는 지난 2000년부터 경관조성국화 품종 개발에 매진해 그동안 ‘마당볼’ 등 34 품종을 개발, 외국 품종에 의존하던 국내 시장의 국산화를 이끌었다.

또 화단국화와 조경국화를 합한 ‘경관조성국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조경 식재 시장을 공략했으며, 농촌마을 입구와 공터 등에 경관조성국화를 식재해 ‘아름다운 농촌



제22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에서 ‘경관조성국화’ 개발 성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도 농기원 김동찬 박사(사진 왼쪽)

마을 만들기’에도 기여해 왔다.

김 박사는 “앞으로도 우수한 품종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아름답고 깨끗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야 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농업기술원 041-635-6407

도정만평

설인호



전국 최초 ‘소비자권리헌장’ 제정·선포

“안전·행복한 소비생활 보장

소비시장·정책 변화 대응할 것”

충남도가 소비자 권익 보장과 비전

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권리헌장’을 전국 최초로 제정·선포했다. 이날 선포한 소비자권리헌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소비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핵심

이다. 소비생활의 만족은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기본 요건으로 작용하는 만큼, 새로운 소비시장 환경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도와 소비자단체, 도민 등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소비자정책을 추진한다.

유공자 표창은 ▲공주시 정일태 주무관 ▲홍성군 이효진 “ ▲예산군 이지영 “ ▲소비자 교육중앙회충남지부 오경미 지도위원이 각각 도지사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소비자권리증진 및 건전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제정책과 041-635-2212



전국 최초 소비자권리헌장 제정을 기념하며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찬 행정부지사(사진 왼쪽부터 네 번째)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의 모습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 이임식 개최

20일, 1년 3개월간 임무 종지부

나소열 충남도 문화체육부지사가 지난 20일 이임식을 끝으로 1년 3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충남도정을 떠났다. 도지사와 도청 각 실·국장 및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임 행사는 주요 약력 소개, 공로패 증

정, 이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나 부지사는 이임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했던 경험을 살려 중앙정치와의 협력 등 문화체육부지사의 또 다른 소임인 정무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임기 시작 후 문화체육부지사로의 명칭 변경은 도민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민선 7기 충남도정의 제1기치가 반영된 것이기에 더 큰 자부심과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 부지사는 “비록 지금 충남도정을 떠나지만,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제 힘을 보탬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운영지원과 041-635-3502

당제를 위해 몸과 마음을 삼가다

도서(島嶼)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

⑭당주

집에 우환 없는 깨끗한 사람
대문 앞에는 금줄이 펴터이고
그 아래에는 황토를 놓고

당제를 앞두면 마을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한다. 여기에서 제사 비용, 제물 마련 등을 결정하고 특히 제사를 주관하는 당주를 선정한다.

삼시도에서는 당주를 뽑는 것을 ‘당주낸다’라고 표현한다. 회의에서는 당주뿐만 아니라 당주를 돕는 사람들도 함께 선출한다. 당주는 섬에 따라 책력(冊曆)을 가려서 뽑기도 하지만, 마을주민 가운데 집안에 산모가 없고 상주도 아닌 깨끗한 사람으로 선출한다. 산모나 상주가 있으면 부정하다고 여겨기 때문이다. 대개는 집안에 어린아이가 없는 노인이 맡는다.

당주로 선출되면 몸과 마음을 삼간다. 집안에서도 가족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당장 긴요한 일이 아니면 말도 잘 하지 않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더욱이 몸

을 부딪치는 일조차 꺼린다.

당주는 소변을 보게 되면 얼굴과 손을 씻고, 대변을 보게 되면 목욕을 해야 한다. 초상집 등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가지 않아야 하며, 개나 고양이 등은 물론 벌레 하나 살생해서도 안 된다.

생선처럼 비린 음식이나 육고기 먹지 않고 소식(小食)한다. 당주는 제물을 구입하러 육지로 나가더라도 부정한 것과 일체 접촉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당주집 대문 앞에는 인쇄끼로 사이사이에 종이나 솔가지끼운 금줄을 치고, 그 아래에는 양쪽으로 황토를 세 무더기씩 놓아 부정을 막는다. 주민들도 당주가 부정 타지 않도록 왕래를 피하고 말도 삼간다.

지금이야 세월이 많이 변화하여 이처럼 엄격하게 당제를 지내는 마을은 급격히 사라졌지만, 아직 어르신들께 당제의 경험을 들을 수 있다.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위해 마을 대표로 선정된 당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혹시라도 마을에 불미스런 일이라도 생기면, ‘당제를 잘못 지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자책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제는 진심을 다해 정성을 들였을 것이다.

/민정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기획부장



당주집에 친 금줄



창업기업 육성 허브 나비(Navi)에서 창업의 꿈 '훨훨'

충남 창업마루 나비 개소

충남도가 유망 청년창업가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창업 전용 공간'을 설립했다. 도는 지난 21일 천안시 불당동에서 '충남 창업마루 나비' (Startup-Navi) 개소식을 열고, 우수한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작업에 돌입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충남 창업마루 나비'는 도내 처음 들어서는 광역 단위 창업지원 전용 공간으로,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출범했다. '나비'란 이름에는 산 정상 또는 집안의 마루를 뜻하는 순우리말 '마루'와 애벌레가 성장, '나비'가 돼 세상을 향해 날아간다는 중의적 의미가 담겼다. 나비를 비롯해 충남의 창업가 맞춤형 지원책을 살펴보았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 초기 창업기업 내비게이션 역할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들어선 충남 창업마루 나비는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창업문화 확산, 창업에 필요한 자금, 컨설팅, 판로 등 충남의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활동을 전담할 창업기업 육성 허브 역할을 맡는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창업 인프라 조성·지원 ▲혁신적인 창업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벤처·창업기업 성장 지원 등 다양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첫 발을 댄 나비는 사업비 14억 원(국비 4억 5000만 원, 도비 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1521㎡(460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인 KTX천안아산 역에서 5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같은 건물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 인접 건물에 충남경제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인프라가 근거리에서 접할 수 있다.

또한 도가 향후 조성할 충남 스타트업 파크 'GStation'과도 인접해 있어, 창업 집적지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 앞서 열린 투자 조인식에서는 충남 'Start-up 벤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BS 투자파트너스와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에너지원이 도내 유망 창업기업인 기반, 스타스텍, 원키에 총 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충남 창업마루 나비 입주기업 명단

연번	기업명	이름	주요생산품
1	주식회사 원키	조원기	차량용 스마트폰 키 시스템
2	이튼컴퍼니	김동현	노면절단파쇄장치, 노면연삭장치
3	포메텍	김다솜	필터샤워기, 워터탱
4	익스플레이스	유대성	유아층 타겟의 장난감 자판기, 성인층 타겟의 인스타그램 픽처 자판기
5	(주)더이앤이솔루션	이치원	백필터, PTFE membrane 복합화 제품, 환경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6	위커벨	이상훈	스마트명찰, 광고서비스, 온라인마케팅
7	레디언티	강은영	개박하로 만든 고양이티백, 개박하를 활용한 고양이전용 탈취제, 개다래+개박하로 만든 고양이향수 및 장난감
8	미션오브트래블	박수진	어플서비스
9	테크스튜디오	황은기	3D프린터를 활용한 플라스틱 시제품 및 PCB기판
10	에어브리지	신병철	물을 이용한 필터, 창문형 환기청정시스템, 탁상형 공기청정기 제조(시제품 단계)
11	맘앤키즈케어	박정민	청소방법 프로세스개발로 표준화된 청소인력 공급 및 관리
12	장군프로젝트	장대웅	노을자천안(어플리케이션)

24시간 개방된 17개 보육실 제공

공간·자금·컨설팅·사업화 등 복합지원

두 개 층에 마련된 나비에는 4층에 마련된 코워킹 스페이스와 시제품 제작소, 스튜디오 등의 공간과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17개의 창업보육실과 이벤트 홀 등으로 구성된 5층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공휴일과 야간에도 탄력

적으로 운영되며 입주기업을 위한 보육실은 24시간 열려 있다.

현재 입주해 있는 12개 기업은 최대 3년간, 평당 2만 원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5명의 인력이 상주하며 초기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한다.

주요사업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활성화 ▲스케일업(창업기업 중소기업화) 프로그램 ▲소재·부품·장비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시제품 제작소 운영 ▲스튜디오 운영 ▲멘토

링 프로그램 ▲스타트업 라이브러리 ▲투자생태계 활성화 등 10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39세 이하 전국 예비창업자 및 7년 이하 창업기업 중 나비에 입주할 청년 창업기업을 선정해 투자지원과 성장을 위한 각종 컨설팅과 상담을 제공한다. 또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통해 고성장이 기대되는 강소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지원 등의 판로 개척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신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공동 R&D 프로그램, 기술 실증지원을 제공해 대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돕게 된다.

창업 인프라·육성프로그램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장 도모

충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창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다양한 창업 인프라 조성과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전략을 추진 중이다.

KTX 천안아산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충남 스타트업 파크 GStation 조성을 비롯해 내포 첨단산단 내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부여와 당진에선 유휴공간인 지역 마을창고를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연내 개소할 예정이며,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해 초기 창업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충남형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1839청년 창업 프로젝트 ▲충남 청년 창업사관학교 운영 ▲작은 브랜드 100개 찾기 ▲레일 프리마켓 운영 및 셀러 양성 등의 사업을 통해 창업과 마케팅은 물론, 판매공간 제공 등 맞춤형 지원책을 구축하고 있다.

또 기 창업한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도내 창업 및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돕고,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공동마케팅을 통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노비즈 인증(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인증) 획득을 도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5

/손유진 syj0319@korea.kr

건전한 충남살림, 도민이 참여할 때 지켜집니다!

충청남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개요

1 신고 대상 ✓ 충청남도 예산의 부당지출 등 낭비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개선할 사항
(예) 불필요한 공사, 부실공사, 보조금 부당수급 등

✓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관련 의견

2 부적절한 신고 ✓ 특정 정책사업에 대해 단순 반대 의견개진에 그치는 경우

✓ 민간분야 등 예산집행과 관련없는 사항

3 신고자 인센티브 ✓ 장관표창 및 도지사 표창 수여, 신고포상금 최대 2천만원 수여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충남넷-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부패·공익신고-예산낭비신고

| 전화 및 문자신고 041-120

처리절차

| 신고접수 → 사실확인(관계기관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 사업시행기관 주의 및 시정조치 → 결과 통보(접수 30일내)

SNS 핫플레이스 ‘우유창고’...농촌마을에 희망을 쏜다

이제는 농촌융복합산업이다

- 보령우유

유기농우유 생산·유통 ‘윈스톱’
자사 제품 판매 우유창고 화제
뛰어난 품질·엄격한 관리 비결

충남 홍성군 서부면과 보령시 천북면을 잇는 40번 지방도로는 바다를 끼고 있어 일찌감치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세를 얻은 곳이다. 이곳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며 외지인들의 발길을 끌어 모으고 있는 곳이 있다. 우유갑 모양의 카페로 SNS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우유창고가 그곳이다. 보령우유(대표 이수호)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 우유창고는 주말에만 하루 1500여명이 찾는 보령 천북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이색적인 건물로 유명세를 얻긴 했지만 보령우유는 전국적으로 찾기 힘든 유기농 목장으로 먼저 알려진 곳이다. 당진이 고향인 이수호 대표는 천북에서 1980년 2마리의 젖소로 개화목장의 문을 열었다. 사육두수를 조금씩 늘리며 농장을 키워온 이 대



이수호 대표가 우유창고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표는 2006년, 일반에서 유기농우유로 생산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했다. 유기농우유는 유기 인증을 받은 환경에서 자란 소에게서 짠 우유를 말한다. 우유를 얻는 젖소는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사료를 먹고, 무항생제로 키워야 한다. 일반 젖소와 달리 한 마리당 916㎡(227평) 이상의 초지 면적과 34.6㎡(10.5평) 이상의 젖소용 운동장을 갖춰야 하는 등 80여 가지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

야 한다. 300여마리의 젖소에서 얻는 하루 원유 생산량이 5000리터. 보령우유는 우유의 단백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초고온살균하는 일반우유와는 달리 72~75도에서 15초 내로 살균한다. 보령우유 제품이 유난히 고소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령우유는 개화목장을 운영하며 이곳에서 얻은 우유를 직접 가공해 판매한다. 우유창고는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팝업스토어인 셈이다. 보령우유의 대표 상품은 유기농우유와 이를 가공해 만든 그릭 요거트, 아이스크림 등이다. 특히 그릭요거트의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요거트에 비해 형질이 단단한데 이는 약 2배 가량 많은 우유를 농축 발효시켜 만들기 때문이다. 단 백질과 칼슘 함량 또한 2배 가량 높아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다. 우유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여느 목장과는 달리 보령우유는 지난 2017년부터 농장 생산과 모든 판매를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유기농우유는 희소성, 중간 유통 없는 직접 판매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보령우유의 한해 매출만 70억 원에 이른다. 보령우유는 카페 외에도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젖소 먹이주기, 유제품 만들기 등 다양한 낙농체험도 진행한다. 개화목장, 착유장, 건조창고, 가공공장 등을 둘러보며 젖소 사육환경과 우유 생산과정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은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데 충남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오는 체험객들이 대다수라고.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체험의

융합을 보여주는 보령우유는 올해 농림식품부 주최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에서 개별 경제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유기농우유, 카페, 체험 등으로 보령우유가 낙농농가의 새로운 성공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주변 낙농가들도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우유의 25%는 보령시 천북면에서 생산된 것들이다. 우유창고에 외지 방문객들이 북적이면서 천북 지역 경제에도 전에 없는 활력이 샘솟고 있다. 보령우유가 유기농우유로 전환하면서 주변 농가들도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유창고가 위치한 보령시 천북면은 일대가 축산단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각종 축사가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수호 대표는 “앞으로도 보령우유가 국내 낙농업의 좋은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갈 것”이라며 “품질 좋은 유기농우유, 정직한 유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동 기자 khd@ggilbo.com

아세안 입맛 잡은 충남 김, 수출길 ‘활짝’

13~16일 자카르타식품박람회

1100만 달러 현장 계약 성사

충남도는 지난 13~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 전시장에서 열린 ‘2019 자카르타 식품 박람회(SIAL JAKARTA)’에 참가, 1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아세안 최대 규모의 식품 전문 기업 간 거래(B2B) 박람회인 자카르타 식품

박람회는 국가별 유망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및 정보 교류의 장으로, 33개국 1530개 기업체가 참가했다. 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은 해외시장 정보 획득과 제품 브랜드 홍보를 통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무역시장 확대를 위해 이번 자카르타 식품 박람회에 도내 수산식품기업의 부스 참가를 지원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조미김·마른김 6개사 ▲키조개 1개사 ▲소금 1개사 등 도내 5개 시·군의 수산식품기업 8개사

가 참여했다.

박람회 참가 결과 8개 업체의 수출 상담 규모는 총 1800만 달러이며, 이중 계약(추진) 금액은 125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알찬재래김’ 1000만 달러 ▲‘광천우리맛김’ 100만 달러 등 현장 계약도 성사시켰다. 또 박람회 혁신 제품으로 도내 업체의 소금·김 제품 등이 선정돼 박람회 참관객 및 바이어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향후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자카르타 식품 박람회는 도내 생산·제조 우수 수산가공식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수출 증대를 위한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지역 수산식품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일정에 앞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충남 명품 김 세미나 및 홍보·관측전’을 개최, 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는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어촌산업과 041-635-4844



자카르타 식품 박람회에 참석한 충남 수산식품기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에 ‘박카스 기업’ 1150억 원 규모 유치

도, 동아제약 등과 투자협약

2022년까지 생산 공장 건립

지난 11~14일 네덜란드와 벨기에, 중국 등 3개국 4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2억 달러에 가까운 외자를 유치한 충남도가 이번엔 ‘박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 유치를 성공했다.

충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상황실에서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이사, 최호진 동아제약 대표이사, 이근호

당진부시장 등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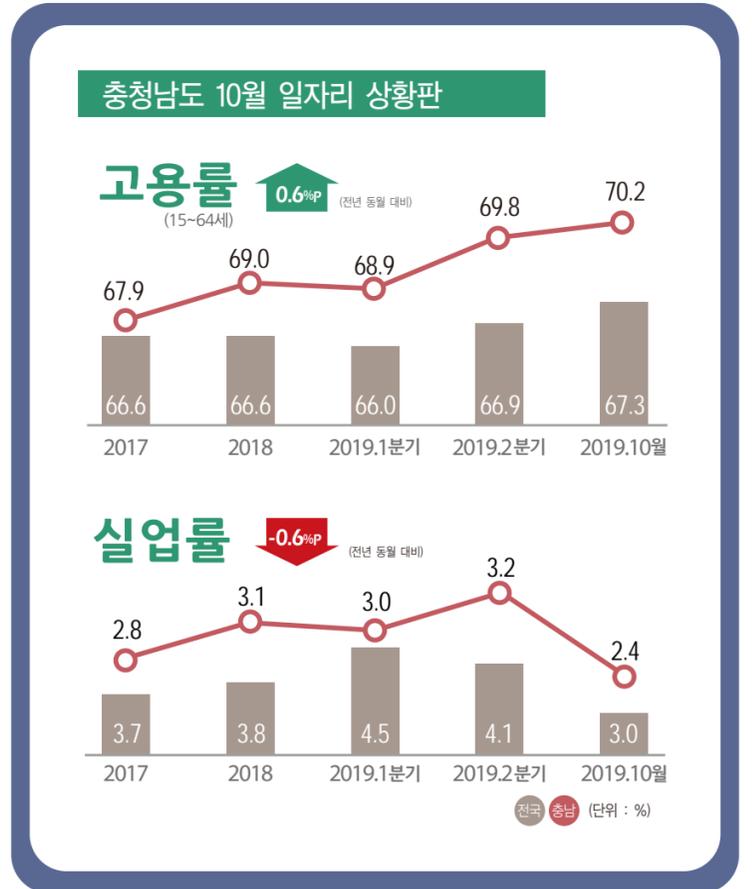
MOU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당진 합덕인더스파크일반산업단지 내 7만 7190㎡의 부지에 건강음료인 ‘박카스’와 소화제인 ‘베나치오’ 생산 공장을 새롭게 건립한다. 이를 위해 동아제약은 다음 달부터 2022년 11월까지 3년간 1150억 원을 투자한다.

동아제약은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지역 인력 우선 채

용 ▲지역건설업체 활용 ▲지역 업체 생산품 및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등에도 힘쓰기로 약속했다.

도와 당진시는 동아제약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동아제약이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할 경우,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 변화 136명 ▲생산액 변화 741억 5200만 원 ▲부가가치 변화 156억 3200만 원 등의 생산효과가 기대된다.

●투자입지과 041-635-3394



탐처럼 쌓는 백제명주, 2030 사로잡아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백제명주가 인기를 특출 누렸다. 2030 청년층은 '사비의 꽃, 웅진의 별, 소서노의 꿈, 서동달' 등 종류주 4종으로 구성된 백제명주 종합 세트의 디자인과 스토리에 관심을 보이며 문의가 이어졌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041-590-0924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7년 연속' 수상

지역부문, 서천 소곡주 대상
경영체부문, 보령우유 우수상

충남도가 2019년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수상'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도는 지난 13일 대전 호텔 선샤인 그랜드볼룸에서 지역단위 부문 대상(서천한산소곡주)과 개별 경영체 부문 우수상(보령우유)을 수상했다. <사진> 농림식품부가 주최한 이 시상식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발굴, 사례를 대내외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서천 한산소곡주는 한 지역에 68농가가 집단으로 전통주

를 빚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서천군은 가양주 특구지정을 통해 주류제조면허를 간소화해 양성화에 기여했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제조업을 표준화하는 등 한산소곡주의 명품화에 앞장섰다. 또한 가양주 시설을 현대화해 서천군 역사문화자원 및 주요 관광지와 연계, 지역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상품과 문화자원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에 이바지했다. 개별 경영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보령우유는 직원 34명 중 젊은 인력이 20명(59%)에 달하는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유기농 유제품을 선보인 공이 인정됐다. 이 중 유기농 그릭 요거트는 스타벅

스코리아 매장 판매 시작과 동시에 '품질 행진'을 보이는 등 판매 호조를 보였다. 직매장 겸 체험장인 복합 공간 '우유창고'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올해 상반기 5만 3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문전성시를 이뤘다. 특히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한 유기전환 컨설팅, 지역의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 대상 유제품 기부 등 지역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 조평곤 도 농촌활력과장은 "이번 경진대회 결과를 통해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성을 재차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육성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활력과 041-635-2533

'혁신도시 100만 서명부' 국회 전달

여야 대표에 혁신도시 지정 요청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지역 현안
"내년 정부예산 반영" 건의 지속

충남도가 220만 도민의 혁신도시 유치 의지를 청와대에 이어 국회에도 전했다. 충남도는 지난 18일 유병국, 전영한, 이상선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도 관계자 등과 국회를 방문,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여야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관계자는 서명부를 전달하며 "충남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지역이지만, 2005년 당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작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종시 출범에 따라 충남 인구는 13만 7000명이 줄고, 면적은 437.6㎢가 감소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경제적 손실은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도민들은 충남 혁신도시는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해 왔다. 따라서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도 충남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상실감 등을 고려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국가 균형발전법 등 개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6일 청와대를 방문,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한 서명부

는 지난 3월부터 도내 곳곳에서 추진한 서명운동의 결과물로, 참여 도민은 총 101만 961명이다. 이와 함께 여야 대표와 국회 예산정책처장 및 예결위원 등에게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가 반영을 요청한 현안은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2억 1000만 원(총 사업비 450억 원) ▲스타트업 파크(Station) 조성 5억 원(// 321억 원)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16억 원(// 350억 원)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7억 원(// 250억 6000만 원) ▲독립운동사 연구센터 이전건립 5억 원(// 100억 원) 등 총 15개 사업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오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건설정책과·예산담당관 041-635-4629-2122



따뜻한 충남... '나눔 실천 1위' 잇는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이 지난 20일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도청 사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54억 3000만 원을 모금해, 나눔 실천 1위 위상을 일궈낸 충남도는 내년 1월 31일까지 167억 70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회복지과 041-635-4254

노동권익보호관 15명 위촉

노동존중, 권익신장 이끌 것

충남도가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일, 도청에서 '제2기 충남도 노동권익보호관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고, 이 자리에서 노동권익보호관을 위촉했다. 노동권익보호관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위촉된 보호관은 노무

사 15명으로 구성,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인다. 도는 이날 보호관 위촉으로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취약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아 공인노무사는 서울시 운영 사례를 발표, 권익보호관으로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3

초미세먼지, '이렇게 대응'

15일, 행정·공공기관 합동훈련

충남도는 지난 15일 도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0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수준 '주의 단계' 발령 상황을 가정해 실전훈련을 추진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주의' 단계 발령 시 조치사항인 ▲공공차량 운행 전면

제한 ▲직원 출·퇴근 차량 2부제(출수차량 운행)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조정 ▲관급공무원 터파기 등 일부 공정 금지 등을 시행했다. 우선 상황 전파, 기관별 비상저감 조치 대응, 발전소 상한 제약 등을 서면훈련으로 실시했으며, 공공차량 운행 제한을 포함한 차량 2부제와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배출원 감축을 실전훈련으로 진행했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7

물이 머무는 마을, 마을로 돌아오는 미래

충남의 미래
⑩물순환 회복으로 가는 길

충남은 104년 만의 대가뭄 위기에 도, 여러 물위기 상황에도 최선의 대응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일까? 지금보다 더욱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여전히 그때에도 관찰할까? 그 해답에 물음표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삶 속에서의 다양한 물 문제 해결과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세밀한 물관리를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조

금은 느리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치 있는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지역별 마을유역의 근본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토대 마련은 위기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특급체력을 만드는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물은 빗물이 땅에 떨어지면서부터 출발한다. 떨어지는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충전되고 하천으로 흘러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것, 그 사이사이 빗물을 머금고 가두어 마을 내에서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축축한 마을의 시작이다. 발원지부터 물을 보유하고 정화할 수 있는 숲과 산림을 보호하고, 사용하지 않는 길과 빈집은 자연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마을 내 식생을 활용하여 물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속도를 조절해 줘야 한다. 더불어 가정에서부터 농업에까지 빗물을 가두고 이용하는 다양한 자연순응형 방안들을 고안해야 한다. 더불어 충남에서 성공한 도랑 살리기 사례처럼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유한한 자원인 마을 내 물을 다시 쓰고 아껴 쓰는 물 재이용 활성화부터 지하수 보전, 내 집 앞 도랑 살리기, 옛 우물 복원 등 함께 노력하는 협력적 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공동체가 살아나는 마을, 물길이 튼튼한 마을, 흙길이

축축한 마을, 숲길이 풍성한 마을을 만들어 자연과 벗하는 마을을 선물해 준다. 빗물을 가두고 이용하는 마을, 빗물이 지하수로 충전되어 물길이 살아나는 마을, 그 안에 다양한 생물과 생태계가 숨 쉬는 마을, 주민 모두가 마을의 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며 서로 협력하는 마을, 이처럼 물과 더불어 자연과 순응하며 살아가는 마을을 통해 주민도 자연도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 수 있다.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한에서의 마을, 그 마을의 포용성 안에서 참여하고 협력하는 주민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미래의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웃음과 건강을 찾아주는 가장 가치 있는 배려이자 첫 걸음이 아닐까 싶다.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공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역 체질 개선과 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미래가 든든한 마을, 물이 순환될 뿐만 아니라 물문화가 회복되는 마을, 살고 싶은 마을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마을에는 사람 웃음소리가 들리는 미래가 있다. 제아무리 축축한 마을의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 할지라도 물이 모자란 날도, 넘치는 날도 올 것이다. 우리 모두는 물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이며 관리의 주체임을 잊지 말고 이러한 부족, 넘침과도 더불어 살아가는 넉넉한 마을 역시 함께 소유해야 하지 않을까? /오혜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3·1정신 계승, 갈등·분열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자”

독립운동사대계·실록 발간하고

3·1독립운동주간 설정 등 제안

3·1운동 100주년 토론회 열고

“독립정신 미래 원동력” 각오

충절의 고장이자 3·1운동 성지인 충남의 독립운동정신을 살피고, 도민 자긍심과 역사인식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장이 열렸다.

도는 지난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 관계자와 안상우 광복회 충남도지부장을 비롯한 도내 보훈단체장, 각종 사회단체장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범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 맞춰 올 한 해 도가 추진해 온 각종 기념사업 등을 공유하고, 충남의 독립운동정신 계승 등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김상기 충남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진호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과 이준식 독립

3·1운동 100주년 충남도 기념사업 추진 성과

- ▲2월 14일 범도민 간담회 개최
- ▲2월 20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공포
- ▲2월 26일 ‘충남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3·1평화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 추진단’ 동시 발족
- ▲2월 28일 ~4월 17일 만세운동 릴레이 재현 행사
2월 28일 천안 → 3월 6일 부여 → 3월 14일 공주 → 3월 29일 서천 → 4월 3일 예산 → 4월 4일 당진·아산 → 4월 5일 청양 → 4월 17일 보령
- ▲2월 26일 유관순 열사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서훈
- ▲2월 28일 국가적 규모 3·1절 전야제 개최
- ▲3월 1일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 ▲8월 15일 독립기념관 8·15 광복절 경축식 개최 (15년 만 대통령 참석)

기념관장, 이정은 한국역사문화원장, 윤환 충남연구원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의 주제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김상기 교수는 ‘충남지역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도내

독립운동을 시기와 계층별로 소개하며 “각종 기관과 민간에 산재한 독립운동 자료를 발굴하는 동시에, 가치 ‘충남 독립운동사대계’를 간행해 충남지역 독립운동을 체계화 하고,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충남인의 위상과

역사성, 정체성 확인”을 강조했다.

김진호 연구원은 ‘충남 3·1독립운동의 특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충남 3·1독립운동실록’ 편찬과 ‘3·1독립운동주간’ 설정 추진 등을 제안했다.

양 지사는 ‘3·1운동정신 계승과 미

래 도정발전 방향’을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 나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위업으로, 이 같은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져 미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올해 710억 원을 투입해 55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충남이 ‘민족정신의 성지’로 거듭나도록 이끈다는 계획이다. 특히 2023년 문을 열게 될 백년의 집은 충남을 민족저력의 상징으로 재조명함과 동시에 충남 3·1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온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00년 전 선열들의 3·1정신을 이어 시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올바른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나 제안을 검토해 도정 반영 방안을 살피고, 독립운동정신 계승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운영지원과 041-635-3503

배출기준 강화·자발적 감축 협약 ‘효과’

19개 업체, 1조 4312억 투자 완료

화력발전, 9월까지 2만 톤 배출

2022년 목표량 근접 ‘기대 중’

올해 충남도 내 화력발전소와 제철업체, 석유화학업체 등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지난 2017년 7월과 지난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화력발전소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2022년 미세먼지(PM-10) 30 μ g/m³·초미세먼지(PM-2.5) 15 μ g/m³ 달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35.3% 감축을 목표로 잡은 ‘충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자발적 감축 협약은 2017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9개 배출업체와 4차례에 걸쳐 체결했다.

도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감축 협약에 따라 태안·보령·당진 등 3개 화력발전소는 2022년까지 환경시설 개선 사업에 3조 301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난 9월 말 현재 8539억 원을 투자했다.

이 같은 조치로 3개 화력발전소의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9월 말 기준 2만 2145톤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3개 화력발전소의 연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22년 목표 배출량(2만 668톤)에도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2만 3476톤의 대기오염물질

을 배출한 현대제철은 2022년까지 5281억 원을 투자해 배출량을 1만 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7년 11월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현대오일뱅크 등 11개 배출업체는 총 5987억 6000만 원을 투자해 2015년 9986.8톤에 달하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22년 7505.6톤으로 30.4% 줄이기로 했다.

지난 3월 협약을 맺은 현대자동차 등 5개 업체는 9월까지 41억 6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배출량은 888.3톤으로 나타났다. 5개 기업은 2015년 기준 1229.4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22년까지 716.8톤으로 줄이기 위해 총 313억 9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환경보전과 041-635-4441

도, 강소농 경쟁력 빛났다

강소농대전 최우수상 수상

농기원, 5년 연속 기관상 쾌거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2015년부터 5년 연속 강소농대전 기관상을 수상, 강소농사업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았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강소농대전’에서 강소농 사업추진 기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강소농대전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농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을 전시·판매하고, 중소농 규모 농가의 농산물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또 ‘강소농 자율모임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경영 개선을 통한 소득 증대 및 판로 확대 비결 등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수상은 도 농업기술원이 실시하는 강소농 자율모임체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현재 도 내에는 80개의 모임체가 운영 중이다. 강소농 자율모임체가 되기 위해서는 ▲품목별 경영 진단 ▲기본 교육 ▲심화 교육을 거쳐야 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강소농 교육 과정을 기술 중심보다 경영 분석, 컨설팅, 조직 관리, 마케팅 등 경영 관련 내용으로 편성해 도내 강소농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농업기술원 041-635-6092

간추린 도정



도 농기원, 어려운 이웃 위해 김장김치 100박스 전달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5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생활개선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생활개선회 회원과 당진시 청년농업인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봉사 의식을 함양하고,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지역 복지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이날 체험 행사를 통해 담근 김장김치 100박스(박스당 10kg)는 당진시

에 기탁,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041-635-6142

산업현장 감시활동 강화

충남도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난 20일 ‘산업안전 지킴이’를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산업안전지킴이는 앞으로 산업안전 현장 및 지역 감시자로서의 역량 발휘를 통해 산재사망 사고를 미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 내 잔재한 다발재해(협착, 전도, 추락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산업재해 발생을 제거·개선하는 활동을 벌인다.

위촉에 앞서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 업종별 산업재해 사례 및 대처방안, 지킴이로서의 역량강화 및 역할을 공유하기도 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4

소아당뇨 환자 인슐린 펌프 전달

충남도는 지난 16일 충남도서관에서 ‘제9회 당뇨병 학술제 및 소아당뇨 후원행사’를 열고, 소아당뇨 환아에게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당뇨인협회 유경아 홍보대사, 대한당뇨병연합 김영지 운영이사 등 소아당뇨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 소아당뇨 환아 36명에게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등도 전달했다.

아울러 학술제를 통해 ▲당뇨병 아이와 가족을 통해 배우 삶 ▲당뇨병에서 췌장 이식의 역할 ▲당뇨병 관리의 뉴 패러다임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2653

자살예방 유관기관 머리 맞대

충남도는 지난 15일 ‘자살예방 유관기관 협력사업 보고 및 간담회’를

통해 올해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저신용 취약계층 및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강화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양성을 위한 자살예방교육 등 협력사업의 현황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2011년부터 종교·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수행 중이며, 지난해를 기점으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과제인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3

“아동 권리 보호 앞장서자”

충남도는 지난 19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건양대학교 이해경 교수 등 6명의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 공모전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서대학교 이승연 학생의 ‘차일드가 옆에 있어요’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 참석자 모두가 함께한 합동 퍼포먼스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다짐했다.

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해 온 아동학대조사 기능을 내년부터 시·군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하고,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6



우수도서관 도시사 인증제 시행...5곳 선정

‘천안 중앙도서관’ 등 표창 수여 인적·정보자원 등 자체지표 활용

충남도서관은 지난 18일 ‘우수도서관 도시사 인증제’를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가운데 우수도서관 5개관을 선정,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우수도서관 도시사 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도가 자체 개발한 평가 지표를 통해 우수도서관을 발굴·육성하는 제도이다.

최우수도서관에는 천안지역 문화 전승을 위한 자료관 운영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인문 독서 특화프로그램 운영, 독서고리 지원 사업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천안시 중앙도서관’을 선정했다.

우수도서관에는 ▲당진시립중앙도서관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아산도서관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성환도서관 등 4개관을 선정했다.



우수도서관으로 도시사 인증제도를 통해 선정된 다섯 곳의 도서관 관계자들이 수상 후기담촬영을 하고 있다.

평가는 도내 58개 공공도서관의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대상·규모·인력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실시했으며 ▲도서관 경영 ▲인적자원 ▲정보자원 ▲도서관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1차 정량·정성평가, 2차 현장 실사평가를 진행했다.

제2회 충남 도서관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최우수 1000만 원, 우수 각 5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나병준 충남도서관장은 “선진 도서관 서비스를 발굴·모색해 도 전역의 도서관에 전파하고, 상호 교류 및 발전

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충남 도서관인의 날 행사’에서는 ▲서정옥 갤러리 대표의 ‘그림 읽어주는 시간’ ▲경철대 박삼미 교수의 ‘관계를 살리는 마음 대화법’ ▲조용갑 성악가의 ‘성악과 함께하는 명사 특강’ 등 다양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도내 모든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담은 수요자 중심의 도서관 정책을 통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충남도서관 041-635-8043-8045

당진항 매립지 분쟁...올바른 이해 돕는다

22일, 도민 공감 토크콘서트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심 독려

충남도가 지난 22일 당진상공회의소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도와 당진시가 주최하고, 당진평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당진대책위)가 주관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의 당위성을 알려 도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담당 공무원 및 당진대

책위,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눠 전문가와 참관객 간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매립지 관할 결정 바로 알기’를 주제로 서부두를 둘러싼 두 차례의 갈등 경과와 매립지 관할 결정의 문제점, 매립지 회복을 위한 간의 노력들을 발표했다. 또 당진대책위 김종식, 박영규, 이봉호 위원장과 이병성 법률자문위원, 당진시 항만정책관이 패널로 참석해 매립지 관할권 및 사실관계 등 여러 쟁점들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이어진 2부에서는 ‘매립지 관할권 소송 대응방향’을 주제로 호원대학교 남복현 교수가 ‘유사 경계분쟁 사례’를 발표하고, 국민대학교 정철 교수, 박천사 도 자문변호사, 당진대책위 천기영 위원장이 참석해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당진대책위 김종식 위원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땅 찾기에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치행정과 041-635-2338

엄니가 썩 낸 고고마가 꿀보다 더 달애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27)

표준어에선 달다) 달네) 다네

충청말에선 달다) 달네) 달애

‘고고마를 먹다가 꿀을 먹으니깐 고고마가 더 달애.’

오늘도 엄니에게 배운다. 일요일이면 엄니 품에 든다. 6남매를 다 떠나보내고 홀로 사시는 엄니는 손가락을 쥘는다.

일요일은 작은 아들이 다녀가는 날이다. 구순의 세월이 꿀틀거리는 날이다.

엄니는 내장탕을 끓여내셨다. 아들이 좋아한다고 장에 나가 사오셨다. 굵은 등을 보이시곤 부진부진 당신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댕긴다. 작은 밥그릇을 두고 큰 그릇에 밥을 쑤다. 주름진 당신이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런 것이다.

엄니 마음을 흠뻑 들이킨 일요일 저녁이면 나는 멍꽝이가 된다. 똥똥 배복소리가 끼지기도 전에 엄니는

간식을 들고 오신다. 감, 꿀, 찐 고구마다. ‘하이고 엄니, 아들 배 터져 죽어요. 들이지 마세요. 들이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안 들일 엄니가 아니니까.

간식 시간은 엄니의 강연을 듣는 시간이다. 쟁반에 소복한 간식을 먹는 시간이면 나는 귀를 기울인다. 엄니는 지난 한 주일의 일상을 들려준다. 실오라기 하나 놓치지 않는다. 말이 끊어지면 내가 묻는다. 내가 묻는 레퍼토리는 늘 그렇다. 엄니의 추억이다.

내 물음에 따라 엄니는 푸른 시절로 돌아가기도 하고, 아픔의 전쟁 시절로 돌아간다. 추억 속으로 들어간 엄니는 옛 충청의 사투리를 길어 올린다. 나는 받아 적는다.

그런데 오늘은 추억 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잊었던 사투리를 들춰낸다. 꿀을 드시던 엄니가 고구마를 입에 물고 불쑥 ‘달애’를 일러주신다. ‘달애, 달애.’ 흔히 듣던 말인데 아직 정리하지 못한 말이다. 나는 메모장에 ‘달애’를 적는다.

“엄니, 시름헌 꿀 먹다 감자 먹으

니께 더 달쥬?”

“이, 고고마가 더 달어졌어.”때론 시절이 뒤바뀐다. 나는 종종 고구마를 감자라고 한다. 내 어릴 적 말이 튀어나는 것이다. 엄니랑 얘길 나누다 보면 흔히 그렇다. 그렇지만 엄니와 내겐 상관없는 일이다. 고고마든 감자든 다 알아듣는다.

나는 돌아와 ‘달애’를 정리한다. ‘달애’는 ‘다네’의 충청말이다. ‘달다’란 말에 종결어미 ‘-네’가 붙으면 ‘달네’가 된다. 그런데 ‘달네’는 발음이 불편하다. 표준어에서는 말하기 쉽게 ‘달’의 ‘ㄹ’를 떼어낸다.

그래서 엄니의 말을 표준어로 바꾸면 ‘고고마가 더 다네’가 된다. 이에 비해 충청말에서는 ‘네’에서 ‘ㄹ’을 버린다. ‘달애’, 엄니가 되돌려준 내 충청말이다.



이명재
예산군 내포제
시조 보존회 회장

‘서해의 기적’...성지화 모색

자원봉사연수원 건립 필요성 공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힘 모으기로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이후 태안군 일대를 자원봉사 희망 성지로 선포한 충남도가 성지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18~19일 태안군 소재 홍익대학교 만리포청소년수련원에서 ‘자원봉사 희망 성지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자원봉사 희망 성지 선포 2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 태안군 관계자, 안승화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을 비롯하여 서해안 기적의 주역인 자원봉사자 22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원봉사 희망의 상징물인 ‘상괘이’ 캐릭터를 선보이

고, 자원봉사 희망의 성지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과 연계된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원봉사 성지화 조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와 태안군은 자원봉사 희망 성지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해안 유류사고지역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123만 자원봉사의 참여정신 세계기록유산등록, 전국자원봉사연수원 건립, 다크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전문 자원봉사 교육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충남도자원봉사센터 041-635-1365

민방위대, 국민안전 지킴이 44년

직장·지역민방위대장 700여 명 참가 민방위대 역할 인식 계기 마련

충남도는 지난 18일 도청문예회관에서 ‘제44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응능력을 함양코자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도는 민방위 발전을 위해 헌신한 43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논산시와 방산아 서산시 여성민방위대원이 각각 행안부장관 표창을, 공주시·롯데푸드 천안공장·코닝

정밀소재·화금리민방위대 등이 각각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민방위대장 교육에는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장과 박결순 충북대 교수가 각각 ‘재난대응 리더십’, ‘영화로 읽는 한국독립운동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라며, “민방위대가 재난 예방의 핵심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정책과 041-635-5628



민방위대 창설 44주년 기념행사서 표창장을 수상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한뚝

충남지속협·충남환경운동연합 1회용품 ZERO 위한 정책제안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남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용품 ZERO 충청남도 만들기 정책제안 일환으로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최근 환경보호 분위기 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충남을 비롯해 예산과 홍성, 목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를 비롯, 도 자원순환팀과 시·군 1회용품 담당자, 천안·공주·서산·

홍성·태안 공공의료원, 충남한두레협동조합과 보람상조 등 상조회사와 민간 장례식장 관계자까지 참여해 민간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홍성추모공원 장례식장 관계자도 참석해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공유했다.

충남지속협 박노찬 사무처장은 “1회용품 줄이기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라며, “축제 먹거리장과 장례식장 등 1회용품 대량 배출업소가 스스로 근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관거버넌스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지속가능발전협 041-634-8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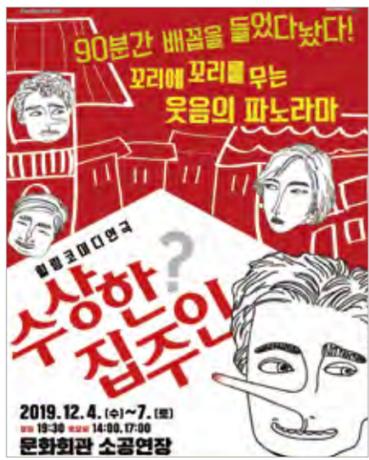


문화행사



휘성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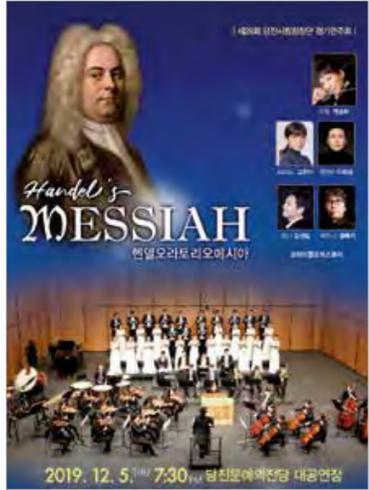
■ 일시 : 12월 12일
 ■ 폭발적인 가창력과 풍부한 감성이 돋보이는 대중 가수 '휘성'이 당진을 찾는다. 가슴시린 이야기, 결혼까지 생각했어, 안되나요 등 그의 대표곡들이 청명한 가을밤을 물들일 예정이다.
 ■ 장소 : 당진문예의전당
 ■ 문의 : 041-350-2911~5



연출과 각본을 맡아 국내에까지 이름을 알린 극작가 '마이클 쿠니'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집주인 '에릭'이 이미 퇴거한 전 세입자 앞으로 온 사회복지사를 몰래 챙기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루고 있다. 타고난 거짓말쟁이인 '에릭'은 사회복지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이어가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꼬여가고, '에릭'은 점점 궁지에 몰린다.
 ■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 문의 : 041-661-8031



영화속으로 빠지는 클래식여행
 ■ 일시 : 12월 13일
 ■ 오페라가수 김동규, 팝페라가수 엘루체, 팝소프라노 복지은 등이 출연, 머드(MUD)오케스트라와 함께 영화 배경음악으로 등장했던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선보인다. 영화 오즈의 마법사,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등 주옥같은 클래식 명곡을 만나보자.
 ■ 장소 :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 문의 : 042-840-3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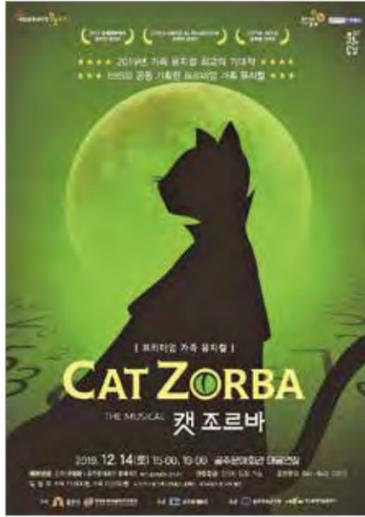


당진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일시 : 12월 5일
 ·당진시립합창단이 품격있는 합창, 최정상급 솔리스트,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모라토리오인 헨델의 '메시아'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특별히 아시아 최초로 오스트리아 빈 국립오페라 주역가수로 활동한 소프라노 고현아가 함께한다.
 ■ 장소 :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문의 : 041-350-3631

코미디연극 '수상한 집주인'
 ■ 일시 : 12월 4일~7일
 ■ 영화 <아이덴티티>, <잭 프루스트>의

충남연정국악원 정기연주회
 ■ 일시 : 12월 5일
 ■ 공주에 뿌리를 둔 충남연정국악원의

제32회 정기연주회다. 소리꾼 남상일이 사회를 맡아 신명나는 국악 한마당을 선보인다. 관현악 '무령왕', 가곡 '아리랑아리랑', 타악과 대금을 위한 협주곡 '비익조', 국악가요 '상모' 등 충남연정국악원의 대표 레퍼토리가 연주된다.
 ■ 장소 :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 문의 : 041-852-7800



가족뮤지컬 '캣 조르바'
 ■ 일시 : 12월 14일
 ■ '캣 조르바'는 수학 퍼즐로 사건을 해결하는 고양이 명탐정 '조르바'가 고양이 왕국 '이페르'의 왕자 실종사건을 파헤치다가 왕국에 감춰진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이야기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존과 화합의 주제를 담고 있고 그 작품성과 완성도가 뛰어나 2015년 첫 공연을 시작한 이래 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이다.
 ■ 장소 :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
 ■ 문의 : 041-840-2203



충남교향악단 순회연주회
 ■ 일시 : 12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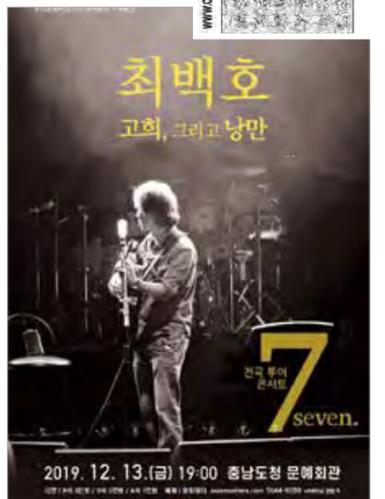
■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순회연주회이자 아산문화재단 브랜드공연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음악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이 지휘자 윤승엽, 바리톤 이동초, 소프라노 유혜리, 가수 하은과 함께 귀에 익숙한 클래식 선율을 선사한다.
 ■ 장소 : 아산시평생학습관
 ■ 문의 : 041-534-2634

부여군충남국악단 정기공연
 ■ 일시 : 12월 7일
 ■ 부여군충남국악단이 연말을 맞아 정기공연을 선보인다. 관현산조합주, 해학창극 '박타는 놀부' 참
 ■ 장소 :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
 ■ 문의 : 041-832-5765



발레 '호두까기 인형'
 ■ 일시 : 12월 24일/25일
 ■ 호두까기 인형의 정통성을 있는 샤프테데르부르크 러시아 발레시어터의 내한공연. 이번에 내한하는 샤프테데르부르크 러시아발레시어터는 러시아 정통발레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마린스키 극장에서 시작된 단체다. 세계 최정상 마린스키를 넘어서는 현 러시아 최고의 발레단이 보여주는 호두까기 인형은 원작의 원형을 보다 더 가깝게 선보인다.
 ■ 장소 : 당진 문예의 전당
 ■ 문의 : 070-8285-3798

최백호 '고희 그리고 낭만'
 ■ 일시 : 12월 13일
 ■ 거친 허스키 보이스에서도 때론 마음을 노래하는 음유시인처럼 낭만을 노래하던 가수 최백호가 어느덧 고희를 맞이했다. 현재 라디오 디제이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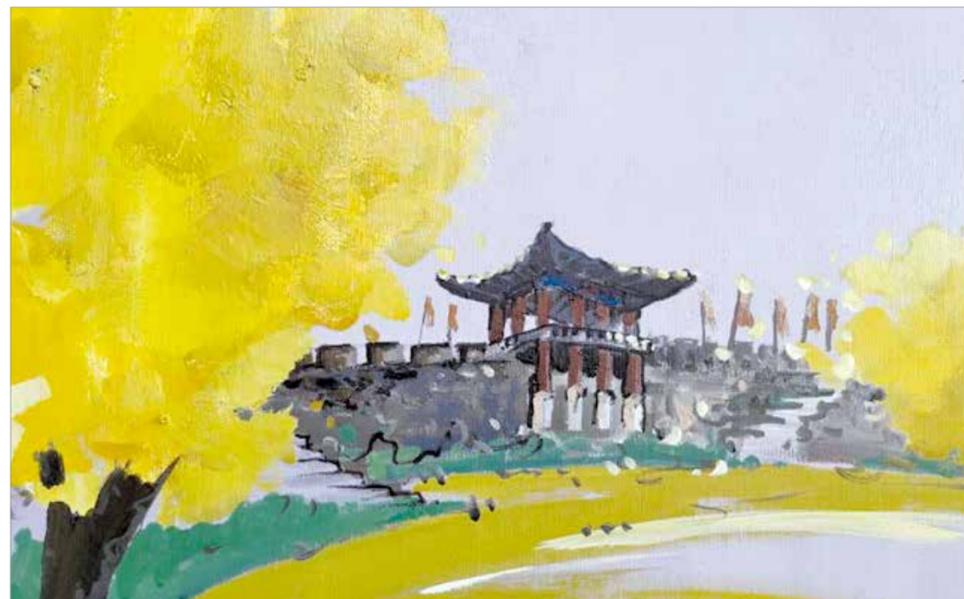


활발한 방송활동 중으로 최근 '7(세븐)'이라는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다.
 ■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 문의 : 1644-9289



남경주의 크리스마스 선물
 ■ 일시 : 12월 12일
 ■ 아산시립합창단이 송년 정기연주회를 준비했다. 국내 최고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함께 크리스마스 합창곡, 귀에 익숙한 뮤지컬 음악들로 무대를 수놓는다.
 ■ 장소 : 아산시 평생학습관
 ■ 문의 : 041-540-2542

석장리박물관 특별전
 ■ 일시 : ~2020년 2월 28일
 ■ 공주 석장리박물관 손보기 선생 기념관에서는 '바다를 건넌 선사인들'이란 주제로 흑요석에 대한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흑요석은 후기 구석기시대에서부터 신석기시대까지 선사시대 인류에 의해 활발히 사용됐다. 일본과 한국에서 출토된 흑요석계 석기들을 통해 바다를 둘러싼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 선사시대 인류의 삶과 문화를 이해해보자.
 ■ 장소 : 공주 석장리박물관
 ■ 문의 : 041-840-8924



홍주읍성

그림으로 떠나는 충남여행스케치 은행단풍으로 물든 홍주읍성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든 깊은 가을에 홍성읍에 있는 옛 성, 홍주읍성을 찾았다.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되어 지금의 성은 조선세종때 왜구의 침입을 막으려 쌓기 시작하여 문종 때 완성 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성의 둘레가 1.5km. 높이는 3.3m로 문이 4개, 안에는 우물이 2개 있었다고 전한다. 그 후 많이 헐리는데 1978년 홍성지진 때 일부 무너져 지금은 800여m 밖에 남지 않았다. 1975년 조선시대 복원한 동문인 조양문은 우리나라 아문 중에서 가장 크고 특이한 형태로 팔작 지붕과 정면 3칸의 다포계 문루로 만들어져 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킨 민종식, 이세영 등이 이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공격하여 덕산으로 격퇴시킨 홍주성 전투가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홍주읍성을 아크릴로 캔버스에 담아본다.

글·그림/서양화가 홍기욱



어느 귀농인의 고백

내포칼럼



이 환 의
홍성군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장

홍성군은 홍동과 장곡 등 동부 지역에 귀농귀촌인이 몰리는 편이다. 반면에 바닷가에 가까운 서부 5개 면은 정착율이 낮다. 특정 해에는 11개 읍면 중 앞서 두 개면에 40%가 넘는 도시민이 삶을 마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민들에게 해당 지역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특히 홍동에는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더 나은 교육여건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 등 도시민을 잡아끄는 요소들이 다른 곳보다 많은 편이다. 또한 장곡은 홍동이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시민이 몰려들자 마치 물잔에 물이 넘치듯 낙수 효과를 봤다.

아마 속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시군도 귀농귀촌 정착률을 비롯한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이 꽤 있을 것이다. 기피 지역은 젊은이들이 가뭇에 콩 나듯 들어오니 학교가 하나둘 문을 닫고 농사 인력을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다. 당장 농번기에는 김매기나 예취기질을 할 사람이 없어 지원센터에 사람을 구해달라는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해당 읍면에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지원 정책의 큰 줄기는 시군에서 나서는 게 당연하겠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지리라 믿는다. 객관적인 조건이 다소 불리해도 말이다. 십여년전 귀농귀촌 전국대회에서 고백한 어느 귀농인의 외침을 되새겨봐도 그렇다.

그이는 땅끝마을 강진에 정착한 이유를 농업기술센터의 고아무개 계장님을 꼭 짚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안 착했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의 의지와 열정이 서울에서 그 먼거리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민을 강진 군민으로 만든 것이다. 필자도 나중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심포

지움에 참석한 강진 군수님께 해당 계장님의 노고를 강조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홍성도 도무지 읍면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진작에 군내 11개 읍면에 귀농귀촌 신고서가 포함된 별도의 거치대를 갖다 놔지만 작동이 되는 곳은 거의 없다. 그 결과 누구도 우리 군에 귀농귀촌인이 얼마나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른 시군의 사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는 시군청과 읍면이 따로 놓고, 귀농귀촌지원 업무는 담당 부서와 귀농지원센터에만 떠넘기는 지금의 난맥상은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지리점 이점에만 기대어 지자체의 소멸에 대비해 시군의 미래를 걸고 뛰는 다른 도에 뒤처져서도 안 된다.

오랜 도시생활을 접고 제 2의 인생을 살기 위해 귀농귀촌 행렬에 참여한 도시민은 시도간 귀농지원책과 담당자의 태도를 정확하게 평가한다. 문자 그대로 진심인지 관심인지 한 눈에 파악하고 선후배 혹은 동기들과 널리 공유한다.

그이들의 평가가 거슬려서가 아니라 농번기에 들녘에 나와 일하는 분들의 면면을 세심히 관찰해보면 왜 우리 읍면에 귀농귀촌인들이 필요한지, 이들을 빼고 농촌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지 보다 명확해진다.

필자가 처음으로 만난 면장님의 태도는 어땠을까? 예상했던 바여서 실망이 크진 않았지만 아쉬움은 남았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시도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진하게 묻어났다. 그간 민간의 수많은 요구에 지친 때문일까? 감장철을 맞아 해당 읍면의 귀농 선배들은 오늘도 일꾼들을 구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우리는 늘 고민스럽다.

매년 귀농귀촌인 유입 지속되지만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지속

적극적인 귀농인 지원정책 부족 읍면 단위 별 세심한 관심 필요

우금티 패퇴군의 퇴로...서천·한산읍성 혈전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

㉮서천의 동학농민혁명

서천은 홍산, 보령, 남포와 함께 남부 내포지방의 대표적인 고을이다. 지금의 서천군은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서천, 한산, 비인으로 나뉘어 있었다.

서천 땅에 동학이 처음 전래된 것은 해월 최시형이 공주 가섭암에서 포덕에 전념하던 1880년대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해안에 연해 있어 조운이 발달한 서천지방은 물산이 풍부하여 지방관의 수탈이 일상화되었던 지역이다. 이런 까닭에 동학이 전래되자 조직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서천의 추용성, 한산의 김약선, 비인의 김우경이 서천지방을 대표하는 접주가 되었다.

지금도 서천지방은 전북과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교류가 활발한 지역이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서천은 전라도지방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총정감사 이현영은 “7월 7일 동학

배들이 서천·청양 등의 읍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과 “7월 17일 동학배들이 연기·한산 등의 지역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서천군수 김인수도 “7월 9일 오시 무렵에 부안의 동학인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 57명이 각각 총과 창을 지니고 한산에서 이곳에 도착하였는데, 총을 쏘면서 읍에 들어와 각 관청 건물에 머무르며 술과 음식을 토색하여, 수성포수가 지닌 총 6자루, 화약 3근, 철환 100개, 창 2자루, 시골 당나귀 2필, 말 1필 등을 빼앗아갔다”라고 충청감영에 보고하였다.

서천지방 동학농민군의 기포는 1894년 10월부터였지만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1월이 지나서였다. 우금티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서천지방 동학농민군이 크게 기포한 것이다. 이렇게 서천지방 동학농민군이 기포하자 11월 19일 전라도 함열 옹포에 주둔하고 있던 금구 접주 박여장이 신성포 나루를 건너와 한산의 접주 김태운, 전한규와 합세하여 한산읍성을 점령하고 관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관

청 건물과 마을이 불타 버렸다.

내포의 다른 지방과 달리 서천지방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11월이 되어서야 활발했던 이유는 공주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의 후퇴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천에서 경군의 배후를 위협함으로써 추격을 저지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이다. 예상대로 경군은 서산군수 성하영에게 2개 소대의 지원군을 주었고, 장위영 병사 및 아카마츠가 이끄는 일본군을 추가로 파견하였다.

경군과 일본군이 서천에 진입하면서 한산읍성, 서천읍성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의 전력으로는 정규군에 맞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

한산, 서천 전투에서 연달아 패한 동학농민군은 빨빨이 흩어졌고, 태반은 강을 건너 임피로 도주하였다. 하지만 미처 도주하지 못한 동학농민군은 경군이 한산에 진을 치고 주둔하는 동안 유희군과 경군에 의해 사로잡혀 죽었다. 서천·한산 일대는 동학농민군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사)당진시동학농민혁명 승전목기념사업회

한 사람이 소중하다

나태주의 꽃꽂편지



시인·꽃꽂이문화관장

문학강연을 할 때면 정작 문학강연보다 책에 사인하는 시간이 많이 들 어갈 때가 있다. 한 시간 문학강연에 두 시간 사인을 할 때도 있다. 사인을 하다 보면 참으로 눈물겹도록 감사한 일을 많이 겪는다.

그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려 줄 때, 점심 식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인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줄을 섰을 때, 엄마에게 드린다고 엄마의 이름을 넣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할 때, 왜 사인을 받기 원하느냐 물으면 나의 시로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올 때.

한 번인가는 제주도의 중학교에 갔을 때 한 여학생이 사인받으러 와서는 내가 쓴 시 ‘혼자서’란 시를 외우면서 왈카 운 일도 있었다. ‘너 오늘 혼자서 외롭게/ 꽃으로 서 있음을 너무/ 힘들어 하지 말아라’ 그 대목이 자기를 울게 했다고까지 말해 왔던 것이다.

나는 사인을 할 때면 내가 읽은 의

자 옆에 또 하나의 의자를 두고 거기에 사인 받는 사람을 앉게 한다. 마주 보는 것보다는 나란히 앉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다. 바로 이것이다. 마주 보면 대결 구도가 나오고 옆에 나란히 앉으면 수평 구도가 나온다. 평등개념이 생기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한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이 한 사람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실로 매우 소중한 느낌이고 하나의 각오이고 고귀한 깨달음이기도 하다. 옆에 앉은 사람이 이런 느낌을 모를 리가 없다. 대번에 무슨 말인가를 해온다.

매우 짧은 시간, 잠시다. 그 시간에 귀한 느낌을 주고받으면서 몇 마디 말을 나눈다. 자기 고백적인 말이다. 사는 일이 힘들냐고 물으면 서슴없이 그렇다고 말해온다. 중학교 학생들 입에서까지 사는 일이 힘들다는 말을 들으면 씬뻬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내 어찌 이런 사람들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소중하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보배이고 재산이다. 내일의 소망이다. 꿈이다.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신비이다. 이런 사람들을 믿으면서라고 고 달프고 힘들지만 하루하루 씩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 보아야 할 일이다.

‘지역자원시설세’와 1급 발암물질 ‘비소’

생생현장리포트



김 동 이
태안신문 기자

태안의 한 초등학교 분교장 운동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됐다는 정밀조사 결과가 지난 10월 24일 발표됐다. 태안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태안 교육지원청과 태안군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우선 태안교육지원청은 분교장에 다니는 13명의 학생들을 분교로의 이동수업을 결정한 뒤 곧바로 리모델링을 통해 교실을 마련하고 통학차량 지원에 나섰으며, 재학생과 교원, 졸업생에 대한 정밀건강 검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요청했다.

태안군도 가만있지 않았다. 비록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지난 11일 경희대학교에 의뢰해 분교장 인근 마을 1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정밀조사 여부도 이달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소가 검출된 분교장 인근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가 논의구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분교장에서 검출된 비소가 태안화력발전소와의 연계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화력발전소의 주원료인 석탄 자체에 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분교장의 정밀 조사를 담당할 이교석 충남대학교

토양환경분석센터 교수의 입을 통해 공론화된 바 있다.

정밀조사 결과 발표시 이교석 교수는 “화력발전소가 100% 원인이 아니다, 원인이더라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교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가 토양오염조사에 참여,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밀조사 결과 발표 한달여가 지나도록 태안화력발전소는 별도로 분교장 학부모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지만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분교장 학부모는 “학교 운동장 비소 검출 문제는 단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까지 힘을 모아 대책 마련에 나서야만이 해결 가능한 문제이지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태안군은 태안군대로 각개전투를 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태안 출신 홍재표 도의원과 김영인 태안군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인만큼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부터 챙기는 행정을 주문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자체장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비소가 검출된 분교장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자원시설세를 우선 투입해 주민들의 건강과 분교장, 그리고 그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환경복원에 나선다면 분교장 학부모와 분교장 인근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출처 : 주민등록인구현황,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충청남도 인구이동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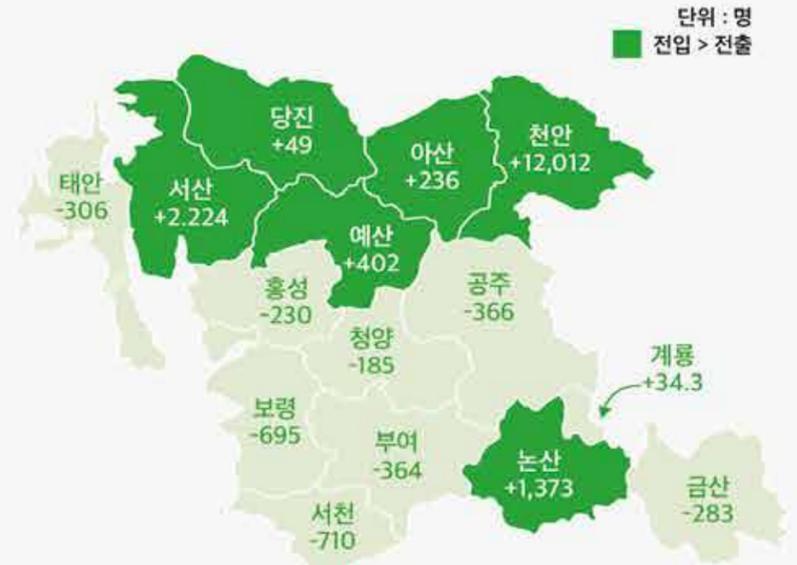


2018년 한 해 동안 충남의 인구는 전입 12만2540명, 전출 11만2556명으로 1만8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충남의 인구는 10년 전인 2008년에 비해 5.3%가 늘어나 212만 6282명에 달하고 있다. 전입 인구는 경기도가 30.3%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7%, 대전 12% 순이었다. 전출은 경기 28.2%, 서울 15.9%, 대전 12.5%, 세종 6%였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만이 1459명이 감소해 취업문제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풀이된다. 시군별로는 충남 서북부 지역은 인구가 늘었고, 남부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절벽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인구 이동의 주요 요인은 주택문제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은 28.2%, 가족 22.7% 등이었다. /도정신문팀

2018 충남 인구이동 현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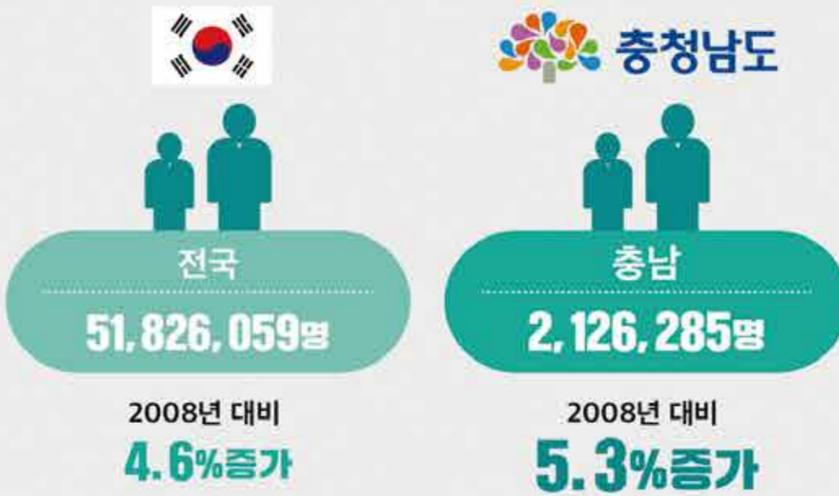
도내 시군별 이동현황은?(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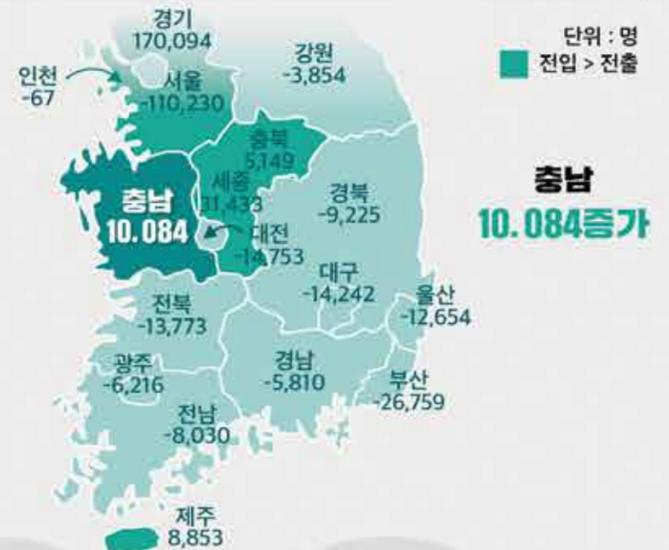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은?



2018 주민등록인구



2018 전국 시도별 인구이동(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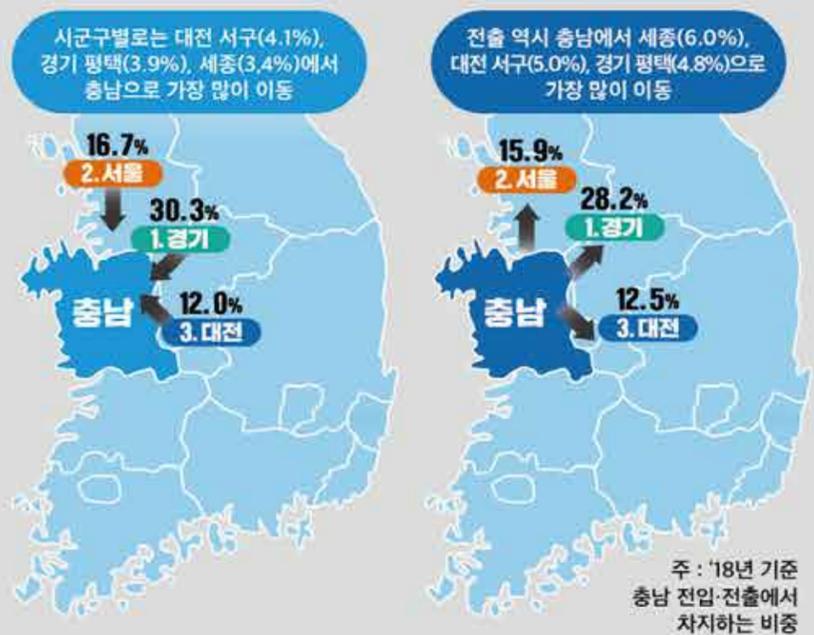
충남 전입·전출 추이



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걸까?





인재가 모이고 청년이 늘어나는 마을... '미래는 더 밝다'

더 행복한 마을

(29) 홍성 오누이마을

오디·누에·냉이+유기농법

미래 먹거리 "걱정 말아요"

청년농업인 중심 4개 협동조합

지속가능 농촌마을 모델 구축

귀촌인 30여 명 재능기부로

도시 못지않은 '교육공동체'



오누이마을 교육관을 소개하는 임응철 시장

지난 7월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된 홍성군 내에서도 오누이마을이 위치한 장곡면 도산2리는 흥동면 문당리와 함께 농식품부로부터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대상마을로 선정된 마을이다.

오디와 누에, 냉이 특산물에서 한 글자씩을 따 '오누이'마을이란 정다운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도산2리는 장곡면의 유기농업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주자다.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대표이사인 도산2리 이장을 겸하고 있는 임응철 시장은 IMF 이후 돌아온 고향

마을에서 새 바람을 일으킨 주역이다. 25년만의 귀향 당시, 마을엔 43가구 70여 명의 주민만이 살고 있었고 어린아이 뛰노는 소리가 끊긴 지 오래였다.

그러던 마을이 2013년부터 인근의 신동리, 지정 1·2리와 손잡고 4개 마을이 권역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가꾸기와 사회적농업에 도전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친환경에 관심을 둔 청년농업인, 시골의 깨끗한 환경을 찾아 온 도시의 재능 있는 활동가들이 권역 내에 정착하며 변화에 함께한 것.

특히 마을사업 시작부터 함께해 온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

마을연구소 등은 마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조직들이다. 귀농청년 16명이 참여한 젊은협업농장은 마을에서 토지를 제공받고 조합원들이 시설을 투자해 쌈 채소 재배를 시작했다.

또 다른 협동조합인 행복농장은 교육과 치유 등 사회적농업을 위한 곳으로, 장애인들을 교육해 재활과 치료 및 자립을 돕고 있다. 시설하우스 4개 동에서 꽃과 채소, 토마토 등을 재배해 판매 수익을 올린 것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겸하고 있어, 지금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선진 모델이 됐다.

이렇게 일자리가 마련돼 먹거리가

해결되자 타지로부터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지금은 도산2리의 주민이 100명이 넘는다. 다만 늘어나는 주민에 비해 거주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다보니 정주 여건 정비도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2017년 도에서는 농업을 배우러 온 청년 농업인들과 마을에 정착하는 청년가구를 위해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주거시설 건축과 노후 주택 정비 등의 지원을 약속해 사업이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새마을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돼 정주 여건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게 됐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해요. 일자리와 거주지, 교육환경이 갖춰줘야 해요. 우리 마을엔 도시에서 귀농한 인재들이 저마다 재주를 재능기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4년 전 시작한 마을학교는 우리 마을만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오누이마을의 자랑은 무엇보다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내는 '마을교육공동체'에 있다. 4년 전부터 장곡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2시간의 마을 교육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 예술, 사진, 요리 등 다양한 분

야에서 20년 이상 전문가로 활동한 귀촌인들이 마을과 손잡고 각 분야별 교육전문가로 나서 마을교사로 활동 중이다.

도시의 대안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일정의 농어촌 인성학교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을의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라는 데 주민과 교육계의 뜻이 일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처음 마을 사업 시작 당시 협동조합들과 함께 손잡지 않았으면 권역 사업을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 나도 같이 젊어지고, 그들로부터 적극성과 아이디어 배우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나도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야겠다 마음으로 같이 힘을 보태 가게 됐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부터의 손길을 안으로 끌어안은 오누이마을의 포용력이 지금의 마을을 만든 원동력이라 말하는 임 시장. 앞으로 2021년까지 유기농업특구가 연장됐고, 장곡마을학교가 2022년까지 충남교육지구사업에 선정돼 지원받는 동안 오누이마을은 얼마나 더 변화할지 기대된다.

/손유진 syj0319@korea.kr

'추사40' 국내 최고 증류주 등극

우리술 품평회 증류주 부문 대상

[예산] 예산 사과 증류주 '추사40'가 우리나라 증류주 부문 공인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예산군과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주)은 국가공인 주류품평회인 '2019 우리술품평회'에서 예산사과와인(주)에서 생산하는 '추사40'이 대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증류주 최고상인 대상을 받은 사과 증류주 '추사40'은 품질이 좋은 예산

황토사과 100%를 사용했으며, 삼압식 동 증류를 거쳐 오크통에서 3년 이상 숙성시켜 제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과 특유의 향이 은은하게 나고 고급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맛과 향을 지녔으며 오랜 숙성을 거쳐 부드러운 맛을 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프랑스의 꼬냑이나 칼바도스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주)은 지난 2012년, 2015년 과실주 부문 대



상, 올해 2019년 백제명주에 3개 주품 선정되는 등 충청의 양조 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산군 제공

유불선 제를 올리는 은산별신제

새로 배우는 충남(24)

백제부흥 복신장군에 절하고

백성의 풍요와 상생 기원

충청인들이여 모두 흥하시라!

충남의 은산별신제는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에 있는 마을 사당인 별신당에서 열리는 제사를 말한다. 별신당에서 매년 지내는 제를 산제라 부르며 3년만에 한 번씩 특별히 지내는 제를 별신제라 부른다.

은산별신제는 금기의 형태가 다양하고 엄하기로 유명하다.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 9호로 지정받았고 특히 유불선 모든 제를 지낸다는 특징이 있다. 홀수 해는 소제로, 짝수 해는 대제로 지내는데 올해는 소제로 진행 되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일째는 물봉하기 및 조라술 담그기를 한다. 본제 3일전 임직원들이 아침 일찍 목욕재계 후 은산천으로 가 금줄을 쳐서 물을 봉한다. 2일째는 진대베기를 하는데 동서남북에 장승을 세우기 전에 진대를 쫓는 것을 진대베기라고 한다.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괴질병이 못들어 오게 함이다. 진대를 베면 운수가 좋다고 여겨 마을마다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진대를 베러 온 사람들의 대접이 아주 후하다.

3일째는 꽃밭기를 한다. 정초에 종이꽃 만들 사람을 선정하는데 대개 인근 사찰이나 정한 장소의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정한다. 4일째는 상당행사 산신제를 지내는데 장군제의 성격을 나타내는 별신제라 모든 과정이 남성들만 할 수 있다. 모든 제



은산별신제

수 음식도 남성이 준비한다. 미리 빚어 놓은 조라술과 정성껏 만든 제물을 운반 할 때는 흥미로운 불거리를 제공해 준다. 모든 사람들이 부정을 막기 위해 한지 조각을 입에 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말을 하게 되면 제수 음식에 침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5일째는 상당곳과 하당곳이 이어지는데 복신장군과 토진대사(백제의 부흥운동을 펼친 인물들)를 모셔둔 별신당에서 별신대제가 이어진다. 절을 할 때마다 고개를 세 번 끄덕여 공손한 예를 표한다. 이것을 고두백배라 하는데 은산별신제의 흥미로운 불거리이다. 6일째는 독산제와 장승제를 지내면서 마무리한다. 은산별신제하면 풍장, 즉 농악 또한 불거리다. 풍장(風葬)은 인간의 삶을 담고 구전심수해 온 살아있는 인류역사이다. 은산별신제는 생사고락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수천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오며 하늘과 자연의 상호관계 안에서 상생의 길을 찾는 외침이다.

2020는 짝수 해 대제를 지낸다고 하니 벌써부터 노래와 춤, 재담, 백제의 혼이 서린 은산별신제의 큰 고향관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충남학 강사 윤선희



공주 '불장골저수지' 촬영지 인기

[공주] 깊어가는 가을 전국 사진사들에게 가장 핫한 출사지(사진 찍기 좋은 곳)로 꼽히는 곳 중의 하나가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의 불장골 저수지다. 불장골 저수지는 일출이 낮은 곳으로, 빛이 늦게 들어와 공주 인근 사찰의 가을풍경을 담고 와도 충분히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 그러나 좋은 풍경을 찍을 수 있는 자리는 캄캄한 새벽에 도착해 두어 시간 썩 꼼짝하지 않고 기다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가을풍경을 담기에 아주 좋은 요즘은 갈색 빛으로 물든 메타세쿼이아와 은행나무 그리고 이름 모를 나무들의 오색 단풍과의 절묘한 조화가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송순선/특급뉴스 sun0910@hanmail.net

세계유산 마곡사 도록 발간

1500년 불교문화 앵글에 담아

[공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곡사' 도록이 발간됐다.

금강문화포럼(대표 이상열)은 '세계유산 마곡사' 도록은 백제시대부터 시작된 마곡사의 훌륭한 문화재와 숨겨

진 부처님의 자비와 가치를 앵글에 담아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특히 마곡사의 옛 정경을 비롯하여 대웅보전, 대광보전, 영산전 등 주요 건축물과 보물 5층석탑, 석가모니불 괘불탱 등 부처님의 정신이 담겨진 모습들이 앵글에 담겨져 공주의 불교문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도록출판기

념 격려사를 통해 "마곡사는 유무형의 불교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불교도의 수행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불교 유산"이라며 "1500년 이상 법맥을 이어와 많은 문화재와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이나 많은 이야기와 전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용희/금강뉴스 sy-yh50@hanmail.net



교황 찾은 천주교 순례지 관광객 부른다

당진 솔피성지 42만 명
서산 해미읍성 116만 명 돌파
백종원 '골목식당' 방영 효과도



당진 김대건 신부 생가를 찾은 방문객들

[서산·당진] 천주교 성지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서산 해미와 당진 솔피성지가 순례지로 주목받으며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당진의 솔피성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4년 8월 방문한 뒤 연간 42만 명이 찾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1821~1846)가 유네스코 세계기념인으로 선정되면서 그가 태어난 당진의 천주교 문화가 주목받고 있는 것.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은 당진시 우강면에 위치한 솔피성지다. 솔피성지는 김대건 신부를 포함해 4대에 걸

쳐 순교자를 배출하며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 역할을 했다. 2004년 복원된 김대건 신부의 생가 앞뜰에는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상도 있다.

지난 2016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한 버그네 순례길도 조명받고 있다. 솔피성지를 출발해 천주교 박해기 신자들의 만남의 공간이었던 버그네시장과 합덕성당, 조선시대 3대 방죽 중

하나인 합덕제를 지나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샘인 원시장 우물터와 무명순교자의 묘역을 거쳐 신리성지까지 약 13.3km 코스로 조성돼 있다.

천주교 성지인 서산 해미읍성의 방문 관광객은 올해 116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 교황이 방문하면서 천주교 성지로 입지를 굳혔다. 꾸준히 선보인 공연도 관광객 유입효과를 가져왔다.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해미읍성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총 12회의 상설전통문화공연을 선보이며 꾸준한 관광객 불렀다.

특히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KBS 2TV '녹두전'을 비롯한 여러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 유치로 전국 각지에 해미읍성을 알려 서산이 전국적인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했다.

/도정신문팀

과다출혈 산모 살려냈다

단국대병원권역외상센터 팀
고위험 출혈 산모 수술 성공



[천안]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권역외상센터 장성욱 교수(사진)팀이 산부인과 협력시술로 최근 대량출혈로 혈액 140여 개의 수혈이 필요했던 고위험 산모를 살려내는데 성공했다.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장성욱 교수팀은 대량출혈로 혈액 140여 개의 수혈이 필요했던 고위험 산모에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REBOA를 적용한 손상통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들은 분만 후 대량출혈로 생명이 위독했던 산모를 대상으로 '대동맥내 풍선폐쇄 소생술'인 REBOA를 시행해 산모의 건강을 되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REBOA는 대량출혈이 발생한 중증외상환자를 대상으로 대동맥 내에 풍선을 삽입해 출혈을 일시적으로

막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응급의료기술이다.

40대의 산모는 태반이 자궁 입구를 완전히 덮고 있는 전치태반과 태반이 자궁과 붙어 있어 분리가 되지 않은 천공태반을 동반한 고위험 산모였다.

병원에 따르면 임신 35주째 분만 후 태반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해 산부인과 의료진과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손상통제술로 신속히 REBOA를 시행했으며, 다행히 더 이상의 출혈 없이 환자는 분만 후 보름 만에 건강을 회복했다.

이정구/충남시사신문 yasa3250@empas.com

금산~논산, 금산~대전 4차선 확장 촉구

충남도 시·군의회의장協 결의

[계룡] 충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진호)는 계룡시의회 회의실에서 제93차 정례회를 갖고 금산~논산(국지도 68호) 및 금산~대전(지방도 635호) 도로 4차선 확포장 건설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도로를 조기 확장해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 도로의 상습정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산~논산간 국지도 68호 4차선 도로 확포장 및 금산~대전간 지방도 635호 4차선 확포장 건설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논산, 계룡, 금산의 도로망은 국토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남권과

충청, 전라권의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도로 수요의 분산이 가능한 점, 영남권의 논산훈련소 접근 편리성 도모, 보령시와 서산, 당진으로 연결되어 서해로 통하는 국토의 동남권과 서북권의 연계 기능을 위해서는 도로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봉석/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영양빵 홀몸노인 3700명에 전달 [청양]남양면 온자리 주민들로 구성된 생명나무아카데미봉사단(대표 유성애)은 연인원 338명이 참여한 영양빵을 만들어 3700여 홀몸노인에게 전달했다. 영양빵 전달사업은 6년째 해오고 있다. /청양군 제공

예산 외국인주민 4000명 시대

비중 10년전 1.2%→5.1%
웬만한 면민 보다 많아

[예산] 예산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4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달 발표된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군내 외국인주민은 4035명(남성 2432명, 여

성 16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11월 주민등록인구(7만9136명)의 5.1%에 해당한다. 대흥면 인구의 2배가 넘고, 광시·대술·봉산·신양·응봉면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다.

2007년만 해도 외국인주민수는 전체 인구 가운데 1.2%에 불과했지만, 10년 새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국적은 중국(752명)으로 1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태국 623명 ▲베트남 417명 ▲캄보디아 242명 ▲네팔 241명 ▲미얀마 152명 ▲필리핀 110명 ▲우즈베키스탄 102명 등이다.

충남도내 외국인주민은 11만7094명으로, 예산군은 15개 시군 가운데 8번째다. 이웃한 홍성군은 4120명이고, 전국은 205만4621명으로 조사됐다.

김수로/무한정보신문 srgreen19@yesm.kr

10월 네이버 농산물 판매왕 탄생

공주 귀농인 전용호 씨
작두콩 등 블로그 판매 인기

[공주] 공주시 강소농 자율모임체 고마농부 회장인 전용호씨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회사인 네이버에서 10월 농산물 판매 부분 1위를 차지해 화제다. 공주시에 따르면, 우성면 한천리에 거주하고 있는 전용호 씨는 10월 농산

물 판매 매출액이 약 1700만원(수수료 공제)을 달성하며 1위에 올랐다.

현재 품목별 농업인 발효연구회장도 역임하고 있는 전 씨는 청년시절 유통업에 종사하다 22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공주시 한천리에 정착한 귀농인이다.

자식에게 간을 이식받을 정도로 아파서 고생한 경험 때문에 작두콩, 돼지감자, 여주, 우엉 등 주로 약용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전 씨는 안정

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밤과 복숭아, 아로니아 등으로 재배 품종을 확장했다.

유통·판매에 고민이 많던 전 씨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농특산물 홍보관촉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판로개척에 힘썼고, 최근 약초와 발효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5년 전부터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작두콩과 작두콩차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급성장했다.

/공주시 제공

사명대사 선양 열기 전국 확산

[보령] 사명대사의 선양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명대사 선양사업은 15년 전 2005년 음력 10월17일부터 보령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명대사 탄신 기념 헌공다례제가 시작됐다. 보령에는 사명당질 관음사와 옛 대전고등학교 도서관 앞 '유정사명대사 기적비' 등 입진왜란 때 불탄 국보8호

성주사지와 함께 유정 사명대사와의 인연이 남다르게 전해 오고 있다.

보령시는 풍천임씨 문중과 천수암 일정스님, 반야선원 해선스님 등을 중심으로 선양 사업을 벌여왔다.

15년이 흐른 지금 보령을 도화선으로 사명대사 다큐멘터리 촬영 소재와 함께 불교계, 학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으며 사명대사기념사업회와 함께 자료를 연구하며 전국에 유려를 공유하며 보령을 알렸다. 이런 계기로 지난 13일에는 경남 밀양시 무안면 사명대사 유적지 공원에서 '제1회 사명대사 호국 혼 선양 문화제'가 열렸다.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사명당"을 기리는 사명대사 탄신 문화제가 그의 고향인 경남 밀양 무안면에서 열린 것이다.

강철호/주간보령 9317733@hanmail.net

멧돼지 출몰에 당진 양돈농가 긴장

21마리 포획...포상금도 20만 원

[당진] 당진에 최근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당진시와 양돈농가들이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2일 당진시 읍내동 도로 및 곳곳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했다. 4일에는 야생멧돼지가 당진 면천면에서 폐사체로 발견됐기도 했다.

폐사체로 발견된 멧돼지는 죽은지 1주일 이상 경과한 상태로 부패가 심했으며 항체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당진에서 포획된 멧돼지는 21마리에 이른다. 30만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당진 양돈농가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 달째 잠잠한 상태지만 멧돼지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없고, 특히 요즘같이 산

속에 먹이가 없거나 최근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 작전으로 인해서 멧돼지의 이동 경로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진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가축·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 일시 이동중지 등 차단방역에 나서고 있다.

당진시는 10월 28일 이후로는 멧돼지를 포획하면 자가소비는 금지되고 포상금만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당진지부 김은호 지부장은 "돼지열병으로 축산농가들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다"며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운성/당진신문 psychojoys@daum.net



아산 다문화가정 장담그기 체험행사 [아산]아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18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결혼 이주여성과 함께 고추장 담그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새로워야 뜬다”...예산농민들의 겁 없는 도전

고덕면서 제주 천혜향 재배 하우스 더덕 재배기간 절반

최근 우리지역에서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고 신농법에 시도하는 농민들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산 천혜향 나무를 고덕에 심어 수확하는가 하면, 산에서 나는 더덕을 예산읍 하우스에 심는 등 농민들이 쌓아온 경험을 재배기술에 접한 것이어서 앞으로가 주목된다.

고덕 상봉리 이계웅(70)씨는 연동하우스 2000여평에 레드향·천혜향·황금향 1400여 그루를 4년째 키우고 있다.

오랫동안 유기농법으로 쌈채소를 재배해 왔던 그는 매년 땅을 갈고 새로 심는 수고를 덜기 위해 대체작물을 구상하던 중, 한번 심으면 평균 15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이 나무들을 심었다.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충남도지부장을 20년여 동안 맡았던 경험을 통해 농가와 제주도에 있는 국립감귤연구소 등에서 재배기술을 교류했다고 한다.

제주도산 과일을 예산에서 수확하기 위해 비닐온실엔 2중 커튼을 사용한다. 별도의 난방을 하지 않는 무가온(無加溫) 재배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



이계웅씨가 황금향 나무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보다도 15일 정도 이른 때 수확할 수 있고, 나무 관리만 잘 해주면 오래 갈 수 있으니 다른 작물보다 일이 적어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확기에 한 그루당 60kg에서 70kg를 수확해 1kg당 5000원에서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11월 15일께 황금향으로 시작해 레드향은 11월 중순, 천혜향은 12월 중순부터 1월 10일경까지 수확한다. 충남 지역 일대와 예산농산물공판장에도 출하하고 있다.

이씨는 “초기 3년에서 5년 동안 나

무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야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무를 키우는 동안 열매를 많이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관심을 보이는 농가에게 당장 수익을 바라긴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다”며 “한 번에 작목 전체를 바꾸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작목과 병행하며 서서히 늘려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강대원(52, 신암 예림리)씨는 예산읍 발연리 신원고 앞 비닐하우스 510평에서 더덕을 재배하고 있다.



강대원씨가 비닐온실에서 재배하는 더덕. 한 달 반 정도밖에 안된 더덕에서도 특유의 향이 난다.

더덕은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하며 수확하는데 2년 정도 걸리지만, 강씨는 14개월 내 수확을 목표로 올해 9월 시험 삼아 하우스에 심었다고 한다.

그는 2017년 비닐하우스에 망고를 재배하는 등 새로운 재배법을 선보여 관심을 받았던 주인공이기도 하다.

생산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깨끗한 마사토에 발효제와 미생물을 잘 섞어 비옥한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 재배 기간을 단기는 핵심이다.

지난 13일 발연리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강씨는 “재배법이 여러 가지지만 씨를 뿌려 갈퀴질을 했다. 1년이 지나

면 손가락 굵기로 자라는데, 큰 것은 뿌리로 판매하고 작은 것은 진액으로 판매하거나 다시 정식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하우를 공개했다.

그는 이어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만약 이 재배법이 성공한다면 산에서 자라는 것보다 일찍 생산할 수 있어 가능성 있는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일반 농가나 가정에서도 텃밭을 활용해 심으면 더덕을 일반 채소처럼 쉽게 먹을 수 있다”고 덧붙혔다.

김두레/무한정보
dure1@yesm.kr

“인생은 품앗이...누구나 어려울 수 있잖아요”

김영란씨 가족 봉사활동 귀감
어르신 목욕·미용 도우며 화합

김영란 씨(54·사진)의 가족들은 매달 2번 장애인시설과 요양원 등을 방문해 미용봉사와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때때로 당진종합병원을 방문해 미용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영란씨네의 봉사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 가족 대부분이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형제들끼리 시작했지만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족봉사단의 인원은 점점 늘었다.

영란 씨가 가족봉사단에서 맡은 일은 어르신들의 잘 정돈된 머리를 감겨드리거나 목욕을 시켜드리는 일이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헤어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목욕은 오로지 영란 씨의 몫이다. 한번 방문할 때면 적어도 12명의 어르신 또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의 머리를 감겨드리거나 씻겨드린다.



사실 영란씨네가 가족봉사를 다니게 된 것은 가족들 중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어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선을 가슴 아프게 겪어왔기 때문에 가족들은 한마음으로 장애인 시설과 요양원 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동등한 사람으로 이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다.

가족봉사가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있다면 영란씨의 개인봉사는 철마다 찾아온다. 집에서 직접 담은 꽃게장과 김치 등을 전달하는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에서 태어나고 또 자랐기 때문에 당진의 곳곳을 모를 수가 없다

는 그는 부녀회 활동이나 이곳저곳에서 알게 된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조손가정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전달한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어르신만큼이나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간다는 영란 씨는 녹색어머니로 교통안전지도를 나서고 삼척반은 아이들의 보금자리 시설에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한다.

자주 방문할 수는 없지만 방문 때마다 지인들의 후원물품을 받아 고마운 마음이라는 영란 씨에게 봉사란 크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서로 품앗이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는 봉사라는 말이 품앗이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은 언제 어떤 형태로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력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일부에서 서로 돕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배길령/당진신문
skyseaeone@naver.com

“건강즙으로 이웃사랑 챙기세요”

우리의 이웃
-김미경 칠갑산건강팜 대표
직접 기른 농산물로 건강즙 생산

자신이 만든 것을 맛있게 먹고 건강하길 바란다는 김미경(59·사진) 칠갑산건강팜 대표를 이웃으로 소개한다.

김미경 대표는 서산이 고향이다. 20여 년 전 남편 임정빈 씨를 만나 결혼하면서 청양과 인연을 맺었고, 제2의 고향이 됐다. 늦게 결혼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엄마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드는 사람으로 통한다.

10월 말로 칠갑산건강원 이름을 걸고 가공업을 시작한 지 꼭 4년이 됐다. 오가피, 찹, 임나무, 토복령 등 건강원에서 사용하는 약재는 남편이 산에서 직접 캐온 것을 쓰고 있다. 나머지 재료들은 대부분 청양산 농산물을 구입해 사용한다.

청양에서 많이 나는 왕대추를 넣은 구기자 대추즙도 그녀의 레시피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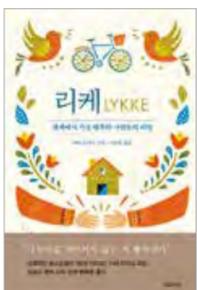
든 제품이다. 두 제품은 충남도립대 산학협력단인 풀뿌리기업의 지원을 받아 제품 상자와 파우치 디자인을 했다. 대부분 건강즙은 들어간 재료로 표시돼 판매되고 있지만 김 대표네 건강즙은 ‘칠갑산건강팜’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소비자를 찾아가고 있다.

건강동행을 표방하며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고 전하는 김 대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판매 활용하는 로컬푸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홍영/청양신문
khy@cynews.co.kr



사서들의 서재



〈마이크 비킹/흐름출판/2019〉

휘게 라이프

덴마크 코펜하겐에는 행복연구소가 있다. 행복을 측정하고 행복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곳으로, 영국 ‘더 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로 선정한 마이크 비킹이 소장을 맡고 있다.

덴마크 출신으로 경영학과 정치학을 전공한 마이크 비킹은 전 세계 국가와 협력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다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연구하며, 세계를 여행하며 행복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덴마크어로 행복을 뜻하는 ‘리케

(LYKKE)’는 행복지수가 높은 덴마크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휘게(HYGGE:웰빙에서 유래한 덴마크어)’를 소개하며 휘게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휘게 라이프’ 이후 3년만의 신작이다.

전작에서 제시한 일상의 소박한 삶의 방식인 휘게를 아우르는 행복(리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상의 행복을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유지할 수 있는 행복의 본질적인 6가지 요소에 대해 말한다. 공동체 의식, 돈,

건강, 자유, 신뢰, 친절이 바로 그것이다.

이 6가지 요소를 어떻게 다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과 통계 자료들로 친절하게 정리한다.

OECD 국가 중 워라벨 순위, 유사시 친구에게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응답한 비율, 낮은 사람을 도우려는 비율 등의 흥미로운 조사들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분위기 또한 가능해볼 수 있다.

저자가 살펴본 여러 나라 중 한국

에 관한 시선과 이 책을 쓴 이유가 드러난 말과 함께 마무리하려 한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행복연구소를 찾아온다. 그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열심히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이 행복의 물음에 대한 열쇠를 찾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정 소 이
충남도의회
의정자료실 서서

우리지역 일꾼을 만나다

충남도의회는 각 지역을 대표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지역의 일꾼들이다. 제11대 도의회 출범 1년을 맞아 충남도정신문은 42명의 도의원을 차례대로 소개한다. 각자 주력하고 있는 정책과 각오 등에 대해 들어봤다.

주민 활짝 웃는 인삼 본산 금산 만든다

김복만 의원(금산2)

금산 인삼육성 기반 마련
노후교량 개량 등 안전 중점



기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산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

남은 임기동안 각오=“안전하고 살기 좋은 청정 금산 만들기에 매진하겠다. 최근 강원도 대형 산불과 여름철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금산을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 현재 제원면 조정천과 추부면 요광리 등 많은 곳에서 노후교량 개량사업이 추진 중이다. 취약지역내 CCTV설치사업이 지역별로 완료 또는 시행되고 있다. 군민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금산을 만들어 가겠다.”

도민께 한말씀=“금산군은 인근 논산·계룡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가 묶여 있다. 도의원의 활동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금산군의회 의원과 의장을 거쳐 도의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폭넓은 인맥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겠다.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통합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며 앞으로 도 도민과 군민을 섬기며 일하겠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나=“외국산 인삼 수입과 재배농가의 고령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삼 재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나 관련 산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초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바로 그것이다. 충남의 자랑인 금산 인삼이 세계적으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인삼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인삼류 가공분야 지원 방안을 담았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하는 장기적 발전전략과 연결해 도 차원의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인삼과 약초 재배 농민이 웃고 외국산 인삼에 맞서 해외시장 수출이 보다 탄력 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안은=“지역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해 11월 신평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단지 내 기숙사가 준공돼 타지에서 많은 근로자가 금산으로 왔다. 소득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금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한다. 30여개 기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70억원)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앞으로도 기업하

농민이 행복한 살기좋은 예산 조성 매진

방한일 의원(예산1)

충남 농민수당제 도입 매진
신례원 발전기반 구축 노력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나=“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농민에게 기본소득보장 등 합당한 대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충남형 농민수당제 연구모임’의 논의를 통해 최적의 농민수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쌀이 갖는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수자원 담수,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등 수 많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진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국민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생산주체인 농민에 대한 지원방안은 여전히 담보상태다. 농민과 직접 논의함으로써 농업이 발전하고 농촌과 농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를 꼽는다면=“무너져가는 지역 상권을 되살려야 한다. 예당호 출렁다리 준공으로 예산군은 전국 최고의 명소로 거듭나며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이 기회를 살려 충남형 특화시장 육성사업 등 기반을 마련해 ‘다시 찾고 싶은’ 예산이 되도록 만들겠다. 신례원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도 중요하다. 현재 옛 충남방직 공장 부지 내 자동차 부품·제조 공장이 가동 중이다. 예산읍 관작지구와 간양지구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고 총 1150여억 원이 투입되

는 자동차 동력전달장치와 수소전기차 부품실용화 사업은 올해 9월 수소차 부품시험평가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다. 남은 부지도 빠른 시일 내 기업 유치를 성사시켜 신례원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임기내 중점 추진사안은=“내포신도시 발전이다. 먼저 도정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내겠다. 2005년 세종시 조성을 이유로 충남과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경제적, 재정적 손실을 입었고 현재 여러 방면에서 역차별을 겪고 있다.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구현은 충남도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며 내포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민과 힘을 모아 반드시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서해선 복선전철 삼교역사 신설도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교육과 대학 등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노력에도 온 힘을 다하겠다.”

도민께 한말씀=“충남도와 예산군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시대적 열망에 힘입어 11대 도의회에 입성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생각하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백제문화제추진위 실효성 점검 필요



최훈 의원(공주2)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이하 백추위)의 존재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운영에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난 18일 백추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시적으로 열리는 축제를 위해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미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또 “민감한 사안이지만 백제문화제가 성공적으로 지속되고 발전하려면 공주시와 부여군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양 지역 간 협의점 도출 등에 대한 백추위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학교 과학실 안전불감증 심각”



전국 학교에서 포르말린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 과학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도내 학교 현장을 방문한 결과 화학약품의 경우 규정에 따라 밀폐 시약장에 이중 잠금장치로 관리되는 반면 화학실험 후 발생한 폐수는 성분 분류 없이 플라스틱통 하나에 모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질이 다른 잔류 시약이 한 곳에 모이면 폭발할 수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수·폐시약은 전문업체에 수거를 맡겨야 하지만 일선 교사들에게 직접 운반을 지시한 사례도 있다”고 질타했다.

장애인 신문구독 관리 철저히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사업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업체와 관행적으로 계약을 맺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영란 의원은 “공정한 선정 절차는 물론 매년 실시해야 할 만족도 조사조차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 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하는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해 신문 질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는 신문 선정과 계약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신문이 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보조금 관리 구멍”



김연 의원(천안7)이 지난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보조금 관리 실태를 집중 질타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면 정해진 기간 내 정산을 완료해야 함에도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법정 정산기한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집행부의 정산업무관리 소홀을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체육회 유관 연맹에 매년 2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인건비에 대한 세금공제 내역이 없다”면서 “법정 정산기한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대 도지사 초청간담회 부적절”



김옥수 의원은 19일 충남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대 도지사 초청간담회 당시 운영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초 충남도는 충남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역대 지사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식사는 구내 식당이 아닌 이 곳에서 이뤄졌고 음식 등을 데우기 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화기 위함이 있는 물품을 도서관 안으로 반입한 것은 규정상 허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간담회라는 명목 아래 특혜를 베풀 것”이라고 질타했다.

난독증 학생 지원 강화 촉구



한국동(천안5) 의원이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초·중학교 한글미해독 학생의 난독증 검사 전면 실시를 이끌어냈다.

한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충남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생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조기 발견해 최적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한글미해독자 판별과 이를 통한 난독증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글미해독 문제는 초등학생 기초학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교육행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한글미해독자 판별 및 난독증 검사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공교육에 대한 기초가 더욱 다져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 복도 음수대 법 준수해야”



김석곤 의원(금산1)은 최근 열린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복도에 설치된 음수대가 학생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도에 설치된 음수대로 인해 복도의 너비가 좁아져 비상상황 발생시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도에 음수대가 설치된 학교가 많다”며 “학생 안전과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에서 표준방안을 마련해 지역에 안내하는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 힘써야”



이영우 의원(보령2)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감에서도 서북부와 남북부 간 사회적 불균형을 언급하며 “충남연구원이 낙후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인근지역 인구유출과 경기침체 우려된다”며 “이에 대비한 경기 활성화 방안과 LNG 복합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 등 대안을 충남연구원 차원에서 적극 연구·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주문



김대영 의원

김대영 의원(계룡)은 13일 종합건설사업소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성회관 사거리의 1년간 무려 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도내 교통사고 다발지역 10곳 중 9곳이 천안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천안시 서북구와 동남구, 당진시, 서산시 순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원인 분석과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충남광역지원센터가 최근 문을 열고 교통약자지원을 위한 업무를 시작했지만 전화가 불통되고 배차가 안되는 등 불편과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비율 높아”



김동일 의원

충청남도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평균 2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의원(공주1)은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일부 사립 중·고등학교가 정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교사도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학기 중 담임 교체 등 신분상의 문제와 책임성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높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안정적인 수업 보장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 학생 참여율 한자릿수”



김영수 의원

김영수 의원(서산2·교육위원회)은 지난 12일 태안·당진·예산·청양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의 주체인 학생이 학교 생활과 밀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직 일부 학교에서만 학생 대표가 참관 형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교육의 주체로서 학생이 당당하게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의결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학교 민주화의 유일한 통로인 학교운영위의 학생 참여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며 “학생 자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생존수영 교육장 관리



김은나 의원

충남도교육청이 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관리를 위한 강사 자격관리나 수영장 수질관리 등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나(천안8) 의원은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14개 시·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강사자격관리나 수영장 수질관리 방식으로는 학생안전에 대한 생존수영 교육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청 소관 수영장 모든 곳에 통용되는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뉴얼에 따라 강사 자격관리나 수질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책 마련돼야



김한태 의원

김한태 의원(보령1)은 14일 열린 저출산보전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진료 접근성 강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송양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 중 31.7%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자살 시도환자 중 35%가 자살을 재시도하는 만큼 이들이 알맞은 회복과정을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사후관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진료접근성 향상과 조기 진료를 통한 예방치료, 지역별 환자 분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첨단장비 보급해 소방관 안전 지키자”



김형도 의원

김형도 의원(논산2)은 18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 안전과 효과적인 화재 방지 대책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재난현장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며 예상치 못한 위험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방관이 휴대하는 안전장비 성능은 변화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지휘본부와 유기적인 활동, 정보 공유로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관에 대한 첨단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소방관의 안전은 물론 효과적인 진화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장비에 IT·광학 기술이나 최적설계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계룡군문화엑스포 준비 서둘러야



여운영 의원

여운영 의원(아산2)이 18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진한 준비 상황에 대해 질책을 쏟아냈다.

여 의원은 “군은 군문화엑스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람료 유료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충남도는 정부 승인 모든 국제행사의 경우 일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관람료 징수(안)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 2월 입장권 발행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군과 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개최 예정일이 내년 9월 18일인데 광역도로 개설, 도로 확장, 보도정비 사업 등 행사장 접근 교통망 구축 준공·정비는 개최시기를 앞둔 8월 말”이라며 “완료 시기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학교 안 공사 ‘학생 안전 뒷전’



오인철 의원

오인철 의원(천안6)은 지난 11일 제316회 정례회 서산·보령·홍성·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산 A학교가 교사수선 공사를 하면서 낙하물방지방 설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A학교는 올해 7월 1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동안 교사수선 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8월 21일 개학 당시까지 본관 외부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를 위해 외부비계를 설치하고도 낙하물방지방 설치를 하지 않아 이를 본 학부모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학교 안 공사의 안전문제가 불거졌다.

오 의원은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부실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종건소 사업집행 지지부진”



이계양 의원

이계양 의원은 13일 종합건설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사업집행 실적과 세금납비 사례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이 종건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11개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당진 송산·송악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경우 계획(90%) 대비 실적은 80%, 부여 청양지역 규암·충남 지방도 확포장공사도 계획(24%) 대비 실적은 10%로 낮았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설계변경 20건 중 12건은 사업기간 연장, 11건은 사업비 증액인데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예산증가가 105%나 된다”며 “조속히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해야”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홍성2)은 1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충남도가 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그러나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단 한 차례도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현재 명예수당은 시군에서 조례를 자체 제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 국가를 생각하는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오늘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유공자들이 살아생전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산공단 화학사고 후속조치 확인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서산1)은 18일 충남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산 대산공단 유증기 유출사고 후속조치 등을 집중 확인했다.

이날 장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대산공단 사고 이후 논의된 후속조치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주민과 소방대원 안전을 확보하려면 소방본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소방본부 구매장비 현황을 보면 화학사고 대응 장비가 없다”며 대응체계 문제 여부를 짚었다.

아울러 지난해 시군 호스릴소화전 설치와 관련해 국비 3억 4800만 원 중 1980만여 원을 반납한 데 대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재난안전실 예산관리 철저 기해야



전익현 의원

전익현 의원(서천1)은 14일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분별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관리 소홀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재난안전실이 안전관리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올해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4곳,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4곳이나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부족한 데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국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예산 운용의 문제점으로 작용하는 것인 만큼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220만 도민 모두가 가입한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규모 확대도 요구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 강화해야”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태안2)은 14일 열린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공어초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인공어초 설치 통계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16년까지 태안군을 비롯한 6개 시·군의 섬 등 인근 해저에 인공어초 9만 2714개(1만 8849ha)가 설치됐다.

최근 3년간 인공어초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143억 1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은 37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인공어초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인공어초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험도로 조기개선 촉구



조승만 의원

조승만 의원(홍성1)은 13일 열린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609호선 홍성 흥동면사무소 인근 급격히 굽은 도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20여 년 전부터 요구한 사인인 만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지만 신속히 보수되지 않아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도 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종합건설사업소는 업무 특성상 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많은 만큼 인력이 최대한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쿨존 과속단속장비 설치 시급



조철기 의원

최근 충남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차량으로 인해 9살 김민식 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단속장비 설치율은 여전히 한자릿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철기 의원(아산3)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장비가 안전을 100% 담보할 수 없지만 어린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며 “이마저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다 보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예산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더 구축해 과속단속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밝혀야”



지정근 의원

지정근 의원(천안9)은 14일 열린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지역안전지수 등급은 교통을 비롯한 5개 분야의 경우 3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 5등급 등으로 상위 등급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선 도정 전반에 대한 협업과 관심 없이는 개선될 수 없다”면서 “등급이 낮은 지역의 등급을 상향하려면 위해·취약·경감 등 각 지표 분석을 통한 분야별 취약요인 점검 같은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분만의료 취약지역 임신부119 구급서비스
- 전 도민 안전보험 가입완료
- 잔류농약 검사시스템 구축 통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



지난 20일 베트남 롱안성 인민의회 대표단이 충청남도 의회를 찾은 가운데 유병국 의장, 이종화 부의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트남 롱안성-충남도의회, 농수산·관광 분야 시설 교류 '본격화'

베트남 롱안성 인민의회 대표단 접견
팜반란 당서기 등 도의회 방문
우호교류 협정 후속조치 논의

충남도의회는 지난 20일 도의회 의
장실에서 베트남 롱안성 인민의회 대

표단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4월 충남도의회
방문단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대표단은 팜반란 당서기와 팜반카이
인민의회 부의장, 공무원, 기업체 대표
등 24명으로 꾸려졌다.

유병국 의장과 홍재표·이종화 부의
장 등 충남도의회 의장단은 대표단과
만남 자리에서 우호교류 협정 당시 논
의했던 ▲농업-관광 연계 ▲소방 등
사회안전분야 경험 교류 ▲지역업체간
교류 ▲농업 가공품 업체 투자 등 구
체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모

색했다.
유 의장은 "롱안성과 충남도는 2005
년 6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후 활
발한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지난 4월
에는 양 의회간 교류 협정을 통해 우
호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자체의 다

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은 물론 기쁨과
슬픔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기다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단은 이튿날까지 충남테크
노파크와 금산 인삼종합전시관 등 도
내 관광·농업 관련 시설을 견학할 예
정이다.

'활력 넘치는 금강하굿둑' 조성 머리 맞대

20일 서천서 정책토론회 개최
금강하굿둑 수질 개선방안 논의

충남도의회가 활력 넘치는 금강하굿
둑 조성을 위해 도민·전문가 등 각계각
층이 참여하는 토론회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
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2
시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금강의 하굿둑 구조 개선과 수질 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금강권역의 새로운 발



전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위 위원장인 오인환 의원(논산)이
좌장을 맡고 명지대 이창희 교수와
충남연구원 김영일 연구위원이 발제자
로 나섰다.
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과 충남연구
원 이상진 수석연구위원, 국립해양생

물자원관 황선도 관
장, 세종지속발전협의
회 최병조 사무처장,
하이드로코어 구본경
이사, 충남도 최문희
도 균형발전담당관,
금강생태문화학교 김억수 교장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금
강권역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한 자리"라며 "충남도민의 소중
한 의견과 제안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최적의 정책대안으로서 도정과 국정과
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농민 기본소득 재원 마련 고심

자체 연구과제 토론회 개최
조례제정 등 정책 반영 추진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제1분과
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에서 소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연구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이 주재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경제환경
위원회가 제안한 '충남 농민기본
소득 보장방안 연구용역' 완료 결
과 보고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어 드론산업 육성과 활성화와
블록체인 기술기반 참여 민주주의
확대 등 자체 연구과제에 대해 경
찰대 강욱 교수와 충남도립대 박
창원 교수로부터 자문 결과를 듣
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들은 연구용역 결과
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
리하고, 자체 연구과제에 대해서
는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보
다 내실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
록 주문했다.
1분과 소속 김명숙 의원은 "농

민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지
속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필요하
다"며 "농정분야의 유사·중복 사
업을 정비해 이중수혜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재
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
조했다.
양금봉 의원은 "농민의 입장에
서 체감 될 수 있도록 제도마련
이 필요하다"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민들이 불안해 하
는 점 등을 감안한 충청남도 차
원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장현 위원장은 "연구용역 보
고 중 충남 도민의 평균소득과
농민의 평균소득을 비교하는 것
이 필요하다"면서 "농민 기본소
득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모든
도민에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관련 부서에 정책 제안은
물론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정
책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나주 혁신도시 찾아 내포신도시 활성화 모색

혁신 산단·정주여건 등 벤치마킹

충남도의회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모
임'은 지난 15일 전남 빛가람(나주)혁
신도시를 현장방문했다.(사진)
이번 견학은 지난 연구모임에서 혁
신도시로 먼저 지정돼 발전하고 있는
도시를 찾아 벤치마킹해 보자는 제안
에서 비롯됐다.
모임 대표인 조승만(홍성1) 의원을
비롯해 장승재(서산1)·정광섭(태안2)
의원과 최문희 충남도 균형발전담당



권 등 회원들은 이날 나주혁신산단당
지를 방문해 산단 분양사업 실태를
확인하고 기관·기업 유치 방안을 고
심했다.

또 빛가람호수공원을 찾아 도시공
원 운영 상황을 살피고 내포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는 데 몰
두했다.
조승만 의원은 "정체돼 있는 내포신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지
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포
신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모임은 내포신도시 활
성화와 시·군 균형발전 등 2개 분과
로 나누어 소관 분야 연구에 매진하
고 있다.

